



강북 집값, 작년 상승분 반납 14



금감원, 상호금융 특판 점검 16

코스피(일주 대비) 2389.04 (-45.29P)
코스닥 719.49 (-13.46P)
환율(달러당 원화) 1301.30 (+1.4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657% (+0.01%p)

알짜 매물도 손사래... '枯死 직전' M&A시장

스페셜 리포트

"산업은행이 시기를 놓친 것 같다. HMM의 민영화는 대우조선보다 더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 (재계 관계자 A 씨)

HMM 인수합병(M&A)에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나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의 말은 그때그때 다르다. 시장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서는 HMM이 지분 매각 대상 리스트에서 빠졌다. 8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HMM의 공공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HMM 매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지

경기침체 우려에 매각 지지부진 올해 M&A 규모 66조 46% '뚝' '1.3조' PI첨단소재 매각 무산 매물 넘치는데 PEF·기업 외면

만, 속도는 시장 전망보다 더 느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관련기사 3면 M&A가 깨지는 일도 다반사다. 투자는 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딜(Deal)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M&A 시장에 부는 한파가 매섭다. 매물

은 넘쳐나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IB 업계에서는 "거래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내년 시장도 어둡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 높은 금리를 줘도 자금조달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됐다.

11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Dealogic)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국내 M&A 규모는 496억5400만 달러(약 65조9077억 원)로 나타났다. 지난해(927억1800만 달러·약 123조683억 원)보다 46.4% 줄었다.

거래가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잇따른다. 전 세계 폴리이미드(PI) 필름 시장 1위 기업이자 몸값 1조3000억 원 규모

의 PI첨단소재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베어링라이프에쿼티아시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의 한국과 일본 버거킹 사업 매각도 원매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KDB생명과 한은시스템 매각 작업도 진척이 없다. 올해 M&A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구강 스캐너 전문 기업 메디트의 인수전도 새 국면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MBK파트너스가 지분인수를 포기했고, 온라인 교육 업체 메가스터디교육도 MBK파트너스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롯데카드와 에이블씨엔씨 역시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다. 햄버거 프랜차

이즈 '맘스터치'는 추가 인수 후보를 찾고 있다.

내년에도 적잖은 기업들이 M&A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악의 경영 여건을 가정할 경우 지난해 말 14.9%였던 한계기업 비중이 올 연말 18.6%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지만, 인수 후보군인 PEF나 대기업들은 세계 경기 불황과 실적 악화로 몸을 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M&A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보여도 인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공기업 입사자도 신원조회 '제2 신당역 사건' 막는다

"법 개정·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가 올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입사 시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4면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특히 전주환이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주환은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

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신원조회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신원조회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관계단체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별 기관의 설립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세종=정대현 기자 vishalist@



18개월 만에... 휘발유 가격 1500원대 국제유가 하락세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8개월 만에 리터당 평균 1500원대로 하락했다. 11일 오픈넷에 따르면 9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93.82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28일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이날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525원을 나타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번주 마지막 FOMC 회의 빅스텝 예상 속 CPI가 관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4차례 연속으로 단행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 행진을 멈추고,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최근 연준 위원들이 밝혔듯 인상 폭보다는 최종금리, 긴축이 내년 안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졌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과 시장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는 전날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7.4%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두 지표 모두 시장 전망치(0.2%, 7.2%)를 웃돌았다. ▶8면에 계속
고대영 기자 kodae0@

I Dream 우주여행 "아빠~ 우주여행 다녀와!"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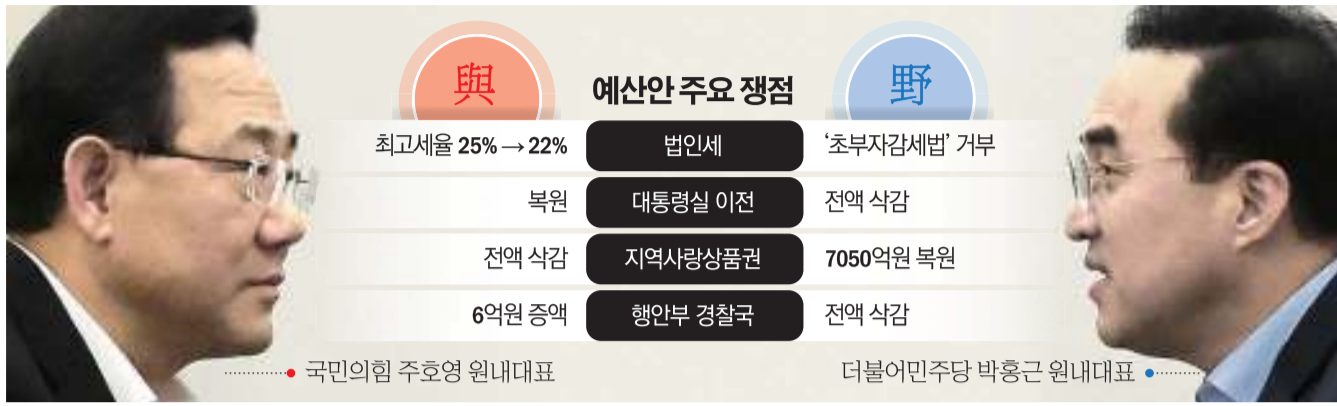
‘예산안 처리’ 사흘 남았는데... 정쟁 휘말린 ‘법인세 인하’

김진표 의장 증재로 합의 미뤘지만 정부·여당 “25%→22% 인하”에 야당 “초부자 감세안 반대” 팽팽 ‘李 해임안’ 갈등도 합의 변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늦춰지면서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는 데 아직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결렬된 뒤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견해를 좁힐 시간을 나눌 더 준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수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등의 경우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정부·여당은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상황도 관건이다. 앞으로 여야 간 정쟁이 극대화하면서 예산안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의장은 기자들에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안을 부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경찰국, 대통령실 등 관련 내용과 서민을 위한 감액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기자 kimstar1215@유휴림 기자 wiseforest@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해임안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할 듯

<행안부 장관>

민주당 “주무장관 엄중책임” 단독처리 국힘 집단퇴장... 국조 특위 총사퇴 대통령실 “공식입장 無” 불수용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

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 지시를 관계기관에 누락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회의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다음 집단퇴장했

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표결 전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투표로 돌렸다. 재적 28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1인으로 본회의가 본격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총사퇴’라는 맞불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

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고 추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와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권한을 행사했으니 그 이후에 권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 가량 걸린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김병기 기자 kimstar1215@유휴림 기자 wiseforest@

“내년 하반기 돼야 M&A 숨통”... 삼성·SK 먹잇감 노리나

회계법인·로펌 전문가 전망

인수합병(M&A) 시장엔 언제쯤 온기가 돌까. 국내 주요 회계법인과 로펌의 M&A 관계자 10명 중 5명은 내년 3분기나 돼야 M&A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사 될 중 미뤄진 딜을 제외하고는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대기업들의 경우 새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사업 재편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회계법인·로펌 관계자들은 한화화과 SK를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 등을 주목할 곳으로 꼽았다.

◇M&A 시장 회복, 내년 3분기 이후... “금리 수준이 좌우” = 11일 본지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과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동인, 바른)의 M&A 부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10명 중 5명은 내년도 M&A 시장 회복이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유동성이 마르면서 국내 M&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사모펀드 투자가 멈춘 만큼 당분간 딜 활성화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이뤘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예금금리가 연 6%인 상황에서 10% 전후 수익이 예상되는 리스크 있는 M&A 투자는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M&A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내년 1분기쯤 M&A 딜소싱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거래성사까지 3분기 이후는 돼야 가시적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A 거래 회복은 결국 ‘금리 완화 기조 전환’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한다. M&A 주축인 사모펀드들이 차입매수(LBO)에 타격을 입은 만큼 금리인상 기조가 풀어져야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리가

높아지면 사모펀드들의 경우 인수금융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LP(출자자)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수금융 비용 증가에 따라 차입을 통한 인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은 M&A가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사업재편 신규 딜 노려, 한화·SK 주목... 유망섹터는 이차전지 = 전문가들은 사업 재편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고금리에 사모펀드 투자 급증 시장회복 전제는 ‘금리 완화’

SK 美반도체·배터리 투자 등 미래먹거리 위한 신규딜 기대 유망섹터엔 이차전지·신재생

삼기 위해 신규 딜에 나서려는 전략적투자자(SI)도 대폭 늘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들어 추가 조정을 받는 M&A 매물을 대기업들이 탄탄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변동법 EY한영 EY-파르테는 본부장은 “대기업들의 경우 유보자금이 많고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한 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의지”라며 “금리인상 직격탄을 맞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목적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 활동을 활성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훈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 파트너는 “SI 중 사전에 돈을 비축해 놓은 곳은 팬츠를 덧씌웠다”며 “구조조정 시장이 열릴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투자 유지에 난항을 겪는 스타트업

국내 주요 회계법인·로펌 2023년 M&A 시장 전망

	시장 회복 시기	유망 섹터	기대되는 기업
삼일회계법인 정경수 전무(파트너)	상반기	이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ESG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SK, 유통 대기업
박주홍 삼정KMPG 재무자문부문 전무	2분기	이차전지, 수소 그린, 바이오, 테크기업	한화, 현대차, SK, 삼성
김보훈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 파트너	3분기	이차전지, 모빌리티, 소재부품	삼성
변동법 EY한영 EY-파르테는 본부장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로봇틱스, 메타버스, ESG 넷제로, 신재생	방산 분야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3분기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삼성, 현대차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M&A 변호사	-	이차전지, 에너지	-
이승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분기	이차전지, 반도체	삼성, 한화, LG, SK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 M&A 팀장	3분기	스타트업, IT	SK, 한화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분기	스타트업	-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골프장, 증권사, 자산운용사	삼성, SK하이닉스, 한화



부문에서도 M&A 매물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생 절차(법정관리)가 예상되는 배달 대형 서비스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은 ‘물류테크 유니콘’을 노렸지만, 글로벌 경기 급변과 고금리 기조로 투자가 마르면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최근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해 출구전략(Exit Plan)을 준비했는데, IPO가 어려워

진 상황에서 기업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자발적·비자발적으로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M&A 시장에서 활약이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한화화과 SK그룹을 많이 꼽았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와 더불어 방산과 에너지 부문 투자가, SK는 미국 반도체, 그린 에너지, 배터리 투자 등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자금 여력이 많은 삼성과 현대차 등도 포함됐다.

유망 섹터로는 이차전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분야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주홍 삼정KMPG 전무(재무자문부문)는 “메인 플레이어는 탄실한 중견기업 이상, 현금 보유량이 많은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수소 그린, 바이오, 테크기업에 대한 SI 투자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상민 기자 si2020@
박민규 기자 pmk8989@
손민지 기자 handmin@

“위기가 기회... HMM 등 매물 관심”

EY-파르테는 설문조사 결과 CEO 43% “내년 M&A 추진” 사업재편 통해 리스크 돌파구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공간이 넉넉한 대기업들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계 최고재무책임자 A 씨) 치솟는 금리에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인수합병(M&A)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쉽 없이 성장해온 PEF 업계의 투자 활동도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들도 적잖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계열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는 조사를 보면 올해 계획했던 M&A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응답률은 97%에 달했다. 다만 10명 중 4명(43%)은 향후 1년 이내에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동법 EY한영 EY-파르테는 본부장은 “국내외 CEO들은 에너지, 원자재, 운송 및 물류비용 등 모든 투입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는 등 여러 경제적 및 지정학적 악재에 직면해 있다”며 “지

금이 새로운 관점으로 전략을 재점검할 적기이다. 선도 기업들은 M&A, 조인트벤처(JV),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M&A를 꿈꾸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대기업들이 군침을 삼킬 만한 매물도 쌓여 있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그중 한 곳이다. HMM의 자산 규모는 25조 원대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후보군으로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LX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재계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재계 서열 8위인 GS그룹도 최근 바이오 분야 M&A 등 굵직한 M&A에 재무적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M&A 시장의 수요자인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점도 M&A 활성화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M&A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은 무르익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과거 M&A 실패의 트라우마(심리적 충격)로 인해 섣달 매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대우건설을 산업은행에 재매각했다. 하이마트를 인수했던 유진그룹도 M&A 후 유증에 시달렸다. 박상민 기자 si2020@

건강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30%의 질병 조기발견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암검진(일부 본인부담금(10%) 있음)

10년간 건강흐름을 한눈에
The 건강보험 앱(APP)

상담 및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공무원법 개정 우선... 지방 공기관 등 범죄사실 조회 확대

공공기관 신원조회 어떻게

현행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대상 범죄전력 등 결격사유 조회 가능

기타공공기관, 공운법 적용 제외 전체기관 350개 중 130곳만 적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감한 사안 사회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가능”

정부는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신원조회 강화 방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하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집행 이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임직원수 ※출처: 통계청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부문 합계	신규 입사자
73만3000명	39만1000명	112만4000명	10만4000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4조에 따라 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직원은 공운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도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사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기반으로 하되 지침이 아닌 법

적 근거로 적용해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당동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원조회를 할 수 없어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했고,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공운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운법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통해 수형 사실은 조회할 수 있지만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한 집행유예, 법률이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인 사실에 한정된다.

지방 공공기관은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역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사건 이후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보

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별개의 법이 함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어떠한 법의 형태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든 무엇이 옳다라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단순 폭행죄도 조회 가능... 취업상 불이익 받을 수도”

전문가의견

정부가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신원조회 강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제2의 신당역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단순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도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조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선택 제한 신원조회 가능범위 명확히 해야”

면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을 수 있어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환이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공공기관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를 통해 이 같은 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파악하는 절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원조회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 외의 기록까지도 열람할 수 있어 취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단순폭행죄로 인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 전력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 혹은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원조회 목적 자체가 스토킹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신원조회 범위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한화, 이번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방산·친환경 시너지

본계약 체결 마감 시한 19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절차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우조선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산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매각 진행 상황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대우조선이 한화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한화 측이 주금을 납부하면 매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본계약 체결 마감 시한은 19일이다. 마감 기한은 양측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유상 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조 원), 한화시스템(5000억 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 원), 한화에너지자회사 3곳(1000억 원) 등 총 6곳이 참여하는데 한화 측은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8년에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인수가격은 6조 원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혈값 매각' 논란 우려도 있었으나, 산은은 “보유한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한화가 대우조선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로 잠수함 등 군용 특수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사업은 특수선(군함·잠수함)과 상선 부문으로 나뉘는데,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함에 따라 구축함과 경비

함,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춘 수 있게 됐다. 특히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을 주축으로 진행 중인 한화그룹 사업구조 재편도 대우조선 인수 마무리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은 방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기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한화디펜스 등 3개 회사에 분산됐던 그룹의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했다.

방산과 함께 그룹의 또 다른 한 축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화의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발전사업에 대우조선의 LNG 해상 생산 기술과 운반, 연안 재기화 설비 등이 더해져 LNG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내년 소매시장,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 둔화”

상의,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

내년 소매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 대상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내년 소매시장이 올해 대비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가 나온 데 대해 “코로나 기저효과와 엔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내년에도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면서 업계가 내년 소매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내년 소매시장 전망에 대해 응답

자의 44.7%가 긍정적 평가를, 55.3%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 내년 소매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코로나 종식(63.4%), 소비심리 회복(5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34.3%), 가계부채 부담 완화(16.4%), 미국발 긴축금융 완화(14.9%)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소비심리 위축(51.8%), 금리 인상(47.0%), 고물가(40.4%), 글로벌 경기침체(26.5%), 소득불안(18.7%) 등을 꼽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4.6%), 백화점(4.2%), 편의점(2.1%)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대형마트(-0.8%), 슈퍼마켓(-0.1%)은 고전할 것으로 봤다.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전략으로는 비용절감(3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상습 음주운전에 특수번호판...“사고예방” vs “망신주기”

관심法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느껴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인격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특수번호판

“주변 시민과 단속경찰 식별 쉽게 스스로 경각심 느껴야 사고 예방” 이상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헌법서 보장하는 명예권 침해 소지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엔 제재 대상 불명확... 실효성 의문

교체를 거부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운창호법’이 있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자에게



美 오하이오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 번호판인 쪽과 일반 번호판.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노용래 의원은 음주운전자 특수번호판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4개월 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한차례 상정된 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선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도입, 시행 중이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오하이오주 등에선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에 특수스

티커,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다만, 단순히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운전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도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예산 증액’ 막히자 ‘서민 감세안’ 띄운 민주

‘법인세’에 興野 예산안 협상 난항 “가계 부담 덜 서민 감세안 필요” 이재명 대표, 의원총회서 제안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서민 감세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놓고 국민의힘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이 수용 조건으로 ‘서민 감세 법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상정돼 있어 처리 가능하다”며 예산 협상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선 지금까지 주로 법인세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이 노력을 더 확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서민 생계 도움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자”고 설명했다.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 주자는 구상인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여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원안 통과나 준예산이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으로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이제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수용한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담정녀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 5만4404개 중견·중소기업에 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대한민국 NO.1답게 새로움을 담다 김치의 또 다른 이름



김치 부문 브랜드파워 1위 한국농협은행권심링 선정 (2001년~2022년)



‘7200배 먹튀’ 새만금 풍력사업 정부, 양수인가 철회·수사 의뢰

산업부, 위반사항 6건 확인 후 조치
사업 위해 양도했던 사업권 백지로
허가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정부가 양도했던 발전사업권은 백지상태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9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 조사에서 양수인가한 지분 구조로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주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양수인가는 권리와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새만금 풍력발전은 지방국립대 S교수가 7200배 이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S교수는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기획했고, 해당 사업은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업체인 T사에 산업부가 발전사업권

을 넘겼다. 이번 철회 결정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서 S교수가 실소유주인 T사의 양수인가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전기위원회는 T사와 관련해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로 재원조달을 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T사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이 없고,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고려해 철회를 결정했다.

이번 철회 결정은 12일부터 유효하다. 산업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마련하는 중이다. 또 풍력자원계측과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도 조직도 강화한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백화점서 즐기는 ‘유럽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1일 서울 영등포구 더서울현대 사운즈포레스트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마켓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주도로 개혁해야 신뢰 얻는다”

정책에세이

매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급여 명세서를 보는 건 스트레스다. 세월에 사회보험료에, 월급이 늘어날수록 공채액도 늘어난다.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채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선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보험료를 ‘받을 돈’ 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다가 장문의 항의 메일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인식은 내년에 예정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큰 걸림돌이다. 논리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가입자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어렵다. 설령 적립금이 소진

‘보험료=떼이는 돈’이란 인식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족’ 겹쳐 직접 기준 만들어 수용도 높이고 가입자 주도 논의로 공감 유도를

되거나 국민연금법이 개정·폐지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확보된 연금 수급권은 재산으로서 보호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해도 모두 공감을 얻진 못한다.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주장에는 반대가 따른다. 신뢰 문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내게, 넓게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선 많은 정책이 ‘기득권층’ 특혜로 매도된다.

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

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공식 논의기구에 가입자 참여를 늘리는 게 그 첫 걸음이다. 하다못해 언론도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현장 기자들이 논의를 주도한다. 보도 당사자들이 직접 기준을 만들게 함으로써 수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협회 등 상위단체가 만들어 내린 ‘하향식 권고기준’이나, 정부 주도 ‘관계 지침’은 힘이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재해 피해 농가 부담 확 줄인다”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농식품부, 54개로 대상 확대
혜택 받는 용자금 대출액 규모
2.1조원→22.6조원 증액 예상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피해 농가가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간접지원의 경우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 이상~50% 미만의 피해를 입으면 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피해율이 50%를 넘으면 상환이 2년 연장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간접지원 대상이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됐다. 그 외 자금 대출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자금 대상을 전체 농업 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용자금 대출액은 현재 2조1000억 원 수준에서 22조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7월 직접 복구지원 단기도 상향 조정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하고, 23개를 신설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송다, 한남도 피해복구에 적용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공정위, 페르노리카코리아에 과징금 9억

10년간 248개 소매업소와
‘불법 리베이트’ 계약 체결
유형업소에 615억원 뿌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인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10년간 유형업소에 615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2020년 6월 248개 유형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금전을 지급받은 유통업소가 페르노리카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가령 A유통업소의 경우 페르노리카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10년 10월~2019년 4월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통 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이러한 금전 제공은 유통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안되면 “내년 전기료 인상분, 올해의 3배”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8일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 요금 2.5원, 기준연료

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Outclass GRANDEUR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견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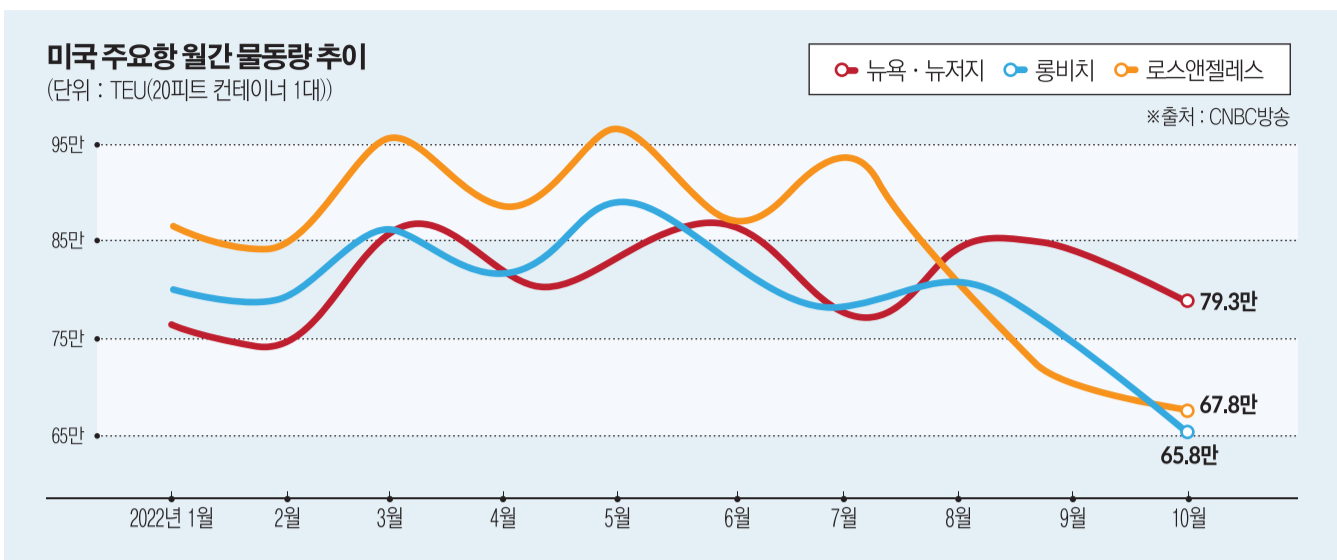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클릭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18"): 복합 11.7km/ℓ(도심:10.0km/ℓ, 고속도로:14.5km/ℓ) | CO2 배출량 143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2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19"): 복합 11.4km/ℓ(도심:9.8km/ℓ, 고속도로:14.2km/ℓ) | CO2 배출량 148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3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2WD (20"): 복합 11.2km/ℓ(도심:9.6km/ℓ, 고속도로:13.6km/ℓ) | CO2 배출량 150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1,65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18"): 복합 10.4km/ℓ(도심:8.7km/ℓ, 고속도로:13.4km/ℓ) | CO2 배출량 163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69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19"): 복합 10.1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3.0km/ℓ) | CO2 배출량 168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1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2WD (20"): 복합 9.7km/ℓ(도심:8.3km/ℓ, 고속도로:12.2km/ℓ) | CO2 배출량 176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3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18"): 복합 9.3km/ℓ(도심:8.2km/ℓ, 고속도로:11.7km/ℓ) | CO2 배출량 179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6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19"): 복합 9.2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1.3km/ℓ) | CO2 배출량 186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69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3.5 엔진 AWD (20"): 복합 9.0km/ℓ(도심:7.7km/ℓ, 고속도로:11.2km/ℓ) | CO2 배출량 19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80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18"): 복합 7.8km/ℓ(도심:6.7km/ℓ, 고속도로:9.6km/ℓ) | CO2 배출량 11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15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19"): 복합 7.4km/ℓ(도심:6.3km/ℓ, 고속도로:9.2km/ℓ) | CO2 배출량 180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3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LPG 3.5 엔진 2WD (20"): 복합 7.3km/ℓ(도심:6.2km/ℓ, 고속도로:9.1km/ℓ) | CO2 배출량 183g/km | 배기량 3,470cc | 공차중량 1,750kg | 자동 8단 (4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8"): 복합 18.0km/ℓ(도심:18.0km/ℓ, 고속도로:17.9km/ℓ) | CO2 배출량 88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00kg | 자동 6단 (1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19"): 복합 16.7km/ℓ(도심:16.6km/ℓ, 고속도로:16.8km/ℓ) | CO2 배출량 9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15kg | 자동 6단 (1등급) ▶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20"): 복합 15.7km/ℓ(도심:15.4km/ℓ, 고속도로:15.9km/ℓ) | CO2 배출량 103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735kg | 자동 6단 (2등급) ※ 동일 사양(구동축,인송,라이오) 모델에 "플트인양 장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차와 플트인양 장착 차종의 연비 통합 인증 사양입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차재, 정비상태 및 위기준에 따라 실수행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비싼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감소' LA항, 22년 만에 뉴욕항에 1위 빼앗겨

LA항 화물 물동량 20년 만에 최저
지난 3개월간 전년 대비 25% 감소
팬데믹 봉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에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 이후
2만명 계약 못해 파업 위험도 고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가 22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 많은 항구'라는 지위를 내줬다. 공급망 혼란과 파업 불안이 LA항의 업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1위 자리는 뉴욕·뉴저지항이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LA항 화물 물동량은 최근 3개월간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7.3% 줄어든 실적이다. 대신 뉴욕·뉴저지항을 비롯해 조지아주 사바나와 휴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등 동부 항구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교역 중심이 서부에



서 동부와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뉴욕·뉴저지항만공사의 릭 코튼 전무는 "기록적인 수준의 화물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안 항구들은 그간 아시아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수입물량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2003년까지 시애틀에서 샌디에이고에 이르는 서해안 항구들은 아시아 수입 컨테이너의 약 70%를 처리했는데, 대부분이 LA항과 롱비치항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공급망 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잃기 시작했다. 팬데믹 봉쇄

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미국인들은 가정용품에 대량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올해 1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입항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선박은 최대 109척에 달했다. 화물 지연은 배송 기간을 몇 주에서 최대 몇 달씩 늘렸고, 이후 의류업체 등 기업들 사이에선 동해안 항구를 통한 새 입항루트를 개척하는 게 중요해졌다. 과거 수입량의

90%를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받았던 아베크롬비앤드피치는 이제 물량의 25%를 동해안 항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서부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위험도 항구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에서만 약 2만 명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그밖에 파나마 운하가 2016년 확장된 이후 대형 선박이 미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미·중 갈등 고조를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의 교역량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뉴욕·뉴저지항 등 동부 항구가 두각을 나타낸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안에서 화물 인프라를 확충하는 작업이 가속화고 있어 LA항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뉴빌에 물류센터가 신설돼 뉴욕·뉴저지항 물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로봇의 진화... 고난도 일도 척척 인간과 일자리 경쟁서 점점 대등

"로봇이 충분히 유능해진 시점에 이르렀다."

로봇공학 전문가인 크리스 하우저 일리노이대 교수는 상품을 고르고 분류하는 창고 로봇 기술의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일자리를 둘러싼 전투가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창고 로봇은 지난 몇 년간 현장에 배치됐지만, 로봇이 인간처럼 일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

아마존 '스파로우' 사람 없이
재고 물품의 65% 분류 가능

찬성 측 "부족한 인력 메워줘"
반대 측 "기존 질서 파괴 행위"

컴퓨터 과학자들이 짚는 창고 로봇 개발의 핵심은 '손'이다. 사람처럼 물건의 모양과 크기 등을 구분해 그것에 맞게 기계를 미세 조정해 물건을 집는 기능을 구현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지난 10년간 노력 끝에 상황이 바뀌었다. 기술 발전으로 창고 로봇이 물건을 구분하고 집는 일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존의 로봇 팔 '스파로우(Sparrow)'가 대표적이다. 스파로우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물건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한 다음 로봇 팔의 흡착판 압력을 조절해 물건을 집는다.

헤드폰이나 장난감 등의 물건도 분류할 수 있는 스파로우는 현재 재고 물품의 약 65%를 분류할 수 있다. 스파로우는 델러스 아마존 창고에서 사

용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마존은 창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2012년 로봇 회사 키바를 인수한 뒤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다. 기존 창고 로봇은 제품을 포장하고 분류하려면 여전히 사람이 필요했지만, 스파로우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사람의 손길을 덜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구글도 식당에서 햄버거를 만들거나 선반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보다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공장 완전 자동화'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했다.

과학자들은 물건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3D 카메라 기술, 더 많은 상품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딥러닝 기술 등이 로봇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 사용 확대를 놓고 여전히 논쟁은 치열하다. 자비에르 반 차우 아마존 대변인은 "로봇은 기업 활동에서 반복적인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한다"며 "이는 직원들이 더 매력적인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로봇 채택의 이점을 설명했다.

인터랙티브애널리틱스의 애쉬 사르마 리서치 이사는 "기업들이 로봇에 몰두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베스 구텔리우스 일리노이대 교수는 "로봇이 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은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기존 질서를 파괴하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로봇 사례에서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영민 기자 oin@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푸틴 규탄' 한목소리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메달과 상장을 들고 서 있다. 왼쪽부터 현재 투옥 중인 벨라루스 인권 운동가 알렉세 비알리야츠키의 아내 나탈리아 핀츠크,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얼의 안 라친스키 이사회 의장,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의 올렉산드라 마트비츠크 대표. 이들은 시상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오슬로/EPA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 전망에도... "낙관은 금물"

이번주 올 마지막 FOMC 회의

▶1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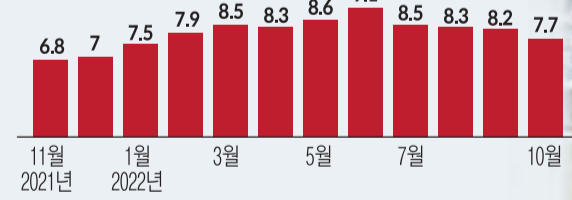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년 동월 대비 6.2% 올라 시장 전망인 5.9%를 웃돌았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4% 올라 오히려 10월(0.1% 상승)보다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식품 가격이 여전히 강세지만, 서비스 부문으로 인플레이션이 옮겨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 PPI 상승률은 10월보다 더 낮아졌지만, 지속적인 긴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연준은 12월 긴축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2023년 초반 몇 달 동안은 그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상을 웃도는 물가 부담에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간 2.77% 하락하며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마감 기록했다. 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지난주 각각 3.37%, 3.99% 떨어지며 부진했다. **홈리치버그의 스테파니 랭 최고투자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

(단위: %) ※ 전년 대비기준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기대인플레이 4.6%로 하향됐지만
WSJ 등 여전히 "CPI 상승" 관측

임자(CIO)는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서 벗어나길 바랐지만, 지표는 그런 바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준이 긴축을 일시 중단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더 가깝게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제 CPI에 집중하고 있다. 11월 CPI는 FOMC 정례회의 첫날인 13일 공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해 10월(0.4%)보다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 역시 7.7%에서 7.3%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도 11월 4.9%에서 12월 4.6%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은 CPI가 7.5% 상승해 예상보다 뜨거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클리블랜드 연은은 대체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전망을 제시했고, 실제로 CPI 상승률이 지난 19차례 발표 가운데 16차례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신뢰를 얻고 있다.

상승 폭 둔화를 전망한 WSJ 역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기준 두 달 연속 0.3%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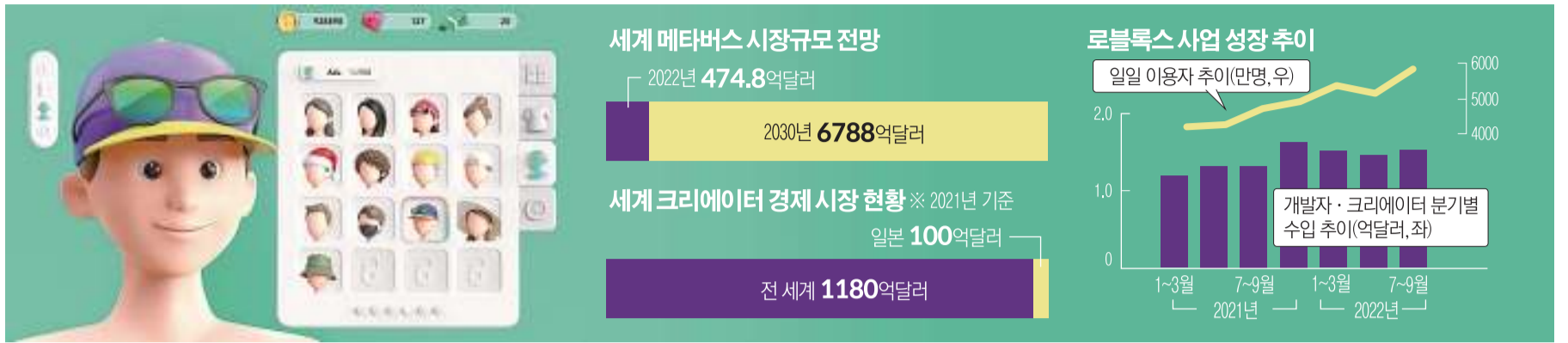
가상 캐릭터가 창업·출판... '아바타경제' 887兆로 팽창

창의성 극대화시킬 가상공간 주목
“2026년 세계 인구 4분의 1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메타버스 체류”
안전한 자금 유통망 구축은 숙제

전 세계 인구가 올해 80억 명을 돌파했다. 엄청난 수치지만, 주목할 점은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각자가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졌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아바타 경제’를 더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이 최근 진단했다.

일본에선 실제 사람이 아닌 2D나 3D 캐릭터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버추얼 유튜버’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 가상 캐릭터는 음악 이벤트를 열거나 책을 출판하기도 한다. 심지어 메타버스 문화 대표 자적으로 일본 정부나 유엔 주재 회의에 초대받는 일도 있다.

이런 가상 캐릭터는 단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 탄생한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밤엔



또 다른 경제 주체로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꼭 노래나 춤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대화 상대만으로도 역할을 해내곤 한다.

단순노동이 자동화하는 시대에 이처럼 인간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닛케이의 설명한다. 특히 얼굴이나 성별, 연령을 자유롭게 바꿔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바타나 메타버스는 현 상황에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엔 한 사람이 여러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포함된다.

이미 관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게임업체 로블록스가 만든 메타버스 세상엔 하루 전 세계 6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접속한다. 이들은 아바타로

살면서 게임을 할 뿐 아니라 게임이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그렇게 거래된 금액은 3분기 기준 1억5150만 달러(약 200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콜로라도에선 일가족 5명이 낡은 집을 리모델링해 가업을 접고 로블록스의 도움으로 게임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게임 전문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대신 현실에서 컴퓨터 지원 설계(CAD)와 건축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로블록스에서 게임 개발 교육을 받아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개의 게임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닛케이의 현실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상당 부분을 메타버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가족과

함께 메타버스로 들어간 네이션 클레멘스는 “로블록스 크리에이터는 거의 다 우리 같은 보통사람”이라며 “(게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에서도 메타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2034년 10조 엔(약 97조 원) 이상을 기록해 2021년보다 7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리서치업체 가트너는 “2026년엔 4명 중 1명이 일이나 학습, 교류 등을 위해 적어도 하루 1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낼 것”이라며 “3차원 공간을 돌아다니며 그간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찾는 기회가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된다면 고령화 시대 80억 명은 더는 성

장 제약 요인으로만 치부될 수 없게 된다.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올해 약 475억 달러에서 2030년 6788억 달러(약 887조 원)로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당장 메타버스 환경에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우선 메타버스엔 안전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유통할 방법이 구축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기프트 카드를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방법이 많이 쓰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한 거래도 아직은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다르고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제부터는 실전”... 메타버스 ‘리얼리티 체크’ 시작된다

애플, MR 헤드셋 첫 제품 출시 눈앞
소니, VR 게임 헤드셋 새 모델 공개
메타, 메타버스 플랫폼 등 개발 박차

새해는 메타버스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메타버스지만, 관련 기업들도 아이디어나 비전 제시에만 집중하면서 그간 가능성을 놓고 말만 무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엔 실제로 메타버스가 구현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처음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내년 메타버스 기기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애플은 내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혼합현실(MR) 헤드셋 첫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16년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용 헤드셋을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소니도 업그레이드 모델을 공개한다.

많은 제품이 나올수록 소비자들이 기술을 체험하고 평가할 기회도 늘어난다. 올해 메타버스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에 고전했던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심기일전해 도전을 이어간다. 메타는 지난 10월 11일 최신 VR·A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프로를 출시했고, 앞으로 몇 달간 신제품들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메타는 메타버스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는 VR, AR 그리고 소셜플랫폼이라

는 3D 축을 중심으로 새 서비스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메타버스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히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이 시장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 등 메타의 경쟁 기업들은 물론 광고업체와 은행들도 메타버스에 도전하고 있다.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기업들은 수년간 가상 세계를 발전시켜온 비디오 게임 기업이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가 개최한 딜북 서밋에서 화상 연설로 “5~10년의 장기적 시야로 보면 메타버스에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더 풍부해지고 몰입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타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도 활발하다.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대기업은 서로 다른 회사의 가상세계에서도 아바타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표준을 추진하는 ‘메타버스 표준 포럼(MSF)’에 가입된 상태다. 심지어 타사와의 호환성보다 독자성을 강조해온 애플도 MSF에 가입했다. **정영인 기자 oin@**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통하는 맛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만나보세요!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www.kukdduk.com

데이터 출처: 자사 수출 국가 기준 고객센터 1644-9798

“내년 더 어렵다”... 삼성·SK·LG 연말 화두는 ‘생존’

2023 전략회의 나선 재계

국내 주요 그룹사가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 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마무리한 삼성전자는 이번 주 15~16일 DX(디바이스경영) 부문을 시작으로 22일 DS(반도체) 부문의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각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 경계현 사장이 주재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국내외 임원급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 부분별 사업 현황과 계획을 점검한다. 통상 12월 회의는 연말 인사 이후 새 경영진과 임원, 해외 법인장까지 모두 귀국해

삼성전자 15일 DX 시작으로
부분별 점검...비상경영 돌입

SK ICT연합 첫 글로벌 전략회의

LG는 4분기 사장단 협의회

한화, 계열사별 전략회의 열어

참석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올해도 대면과 화상회의 방식을 동시에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합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전망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TV·가전·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원자재가·물류비 상승, 인플레이션, 고금리, 수요 위축 등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TV·가전 부문은 전체적인 수요 감소에도 복미,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모바일 부문은 내년 1분기에 선보일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흑한기’를 맞은 DS부문은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 달성을 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육성 전략을 들여다볼 것

로 예상된다.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의 근간으로 제시한 기술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내년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사업부별 경비 절감에 나서는 등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SK스퀘어 등 ‘SK ICT(정보통신기술) 연합’이 처음으로 8~9일 이틀간 제주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겸 SK스퀘어 부회장 제안으로 처음 열렸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지정학 리스크 대응 방안 △반도체 사업 국가별 리스크와 기회요

인 점검 △ICT 관계사간 시너지를 창출 협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최근 구광모 회장 주재로 4분기 사장단 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분기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선임된 CEO들이 참석해 내년 전망과 경영 계획을 되짚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별 전략회의를 열어 내년 시장 전망과 함께 사업 전략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업들이 더 보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과거 위기 극복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대비 차원의 투자는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사진제공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오쿨러스’ 글로벌 건축계서 호평

세계 건축 페스티벌 어워즈 본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경기도 판교 분사 테크노플렉스에 설치된 디지털 예술 작품 오쿨러스(Oculus)가 세계건축축제(WAF) 주관 2022 세계 건축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완공된 건축물 디스플레이’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오쿨러스는 철제 케이블과 삼각형 LCD, LED 모듈로 식물의 덩굴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하이테크 예술 작품이다. 유명 영국 디자인그룹 ‘제이슨 브루지스 스튜디오’가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다.

이민재 기자 2mj@



기아 ‘EV6’.

사진제공 기아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유럽 질주’

기아 전기차 20만대 돌파
니로EV 12만대 최대 판매
현대차는 누적 24만대 임박

현대자동차, 기아가 친환경차를 무기로 유럽 시장에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0월 말 기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 20만984대를 기록했다. 2019년 1만3132대로 첫 1만 대를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3만9031대, 지난해 6만3419대 등을 판매하며 빠르게 판매량이 늘고 있다. 차종별로는 니로EV가 12만1852대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쏘울EV(4만6791대), EV6(3만2341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기아에 앞서 지난 4월 유럽 시장 전기차 누적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다. 올 10월 기준 유럽 내 누적 전기차 판매량은 23만7631대다. 코나EV(14만5144대), 아이오닉EV(4만9241대), 아이오닉5(4만3246대)가 판매량 상위 모델을 차지했다.

올해 현대차·기아는 유럽 내 전기차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양사는 한 해 동안 총 13만5408대의 전기를 판매했다. ACEA에 따르면 올 10월 까지 양사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11만91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4883대보다 13.6% 증가했다.

양사는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스포티지 및 현대차 투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최근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자이퉁’의 하이브리드 모델 비교 평가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비교 평가에서 스포티지와 투싼은 하이브리드 시장을 주도하는 토요타 ‘RAV4’ 등 일본 브랜드 차종 3개와 경쟁했다.

아웃도 자이퉁은 △바디 △주행 컴포트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경제성 등 5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 스포티지는 총점 2986점으로 1위를, 투싼은 298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민재 기자 2mj@

100대 기업 중 18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경총 100대 기업 실적 분석

3분기 누계이자비용 17% 증가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25% ↓

국내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 항목 특징 분석’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 배율 1미만’ 기업은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18개로, 지난해 13개보다 5개 늘어났다. 이중 ‘이자보상 배율 0미만’ 기업(영업적자)은 13개로, 지난해 11곳보다 증가했다.

이는 영업이익 감소와 더불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이자 비용이 급증하며 영

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누계 이자 비용은 5조32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4조5446억 원 대비 17.2% 늘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자금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향후 기업들의 이자 부담 가중뿐 아니라 투자 확대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에도 애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100대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다. 100대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18.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7% 줄어들었다.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늘어난 영업이익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3분기 누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9%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적자가 지속된 기업이 46개로, 100대 기업의 절반

정도가 영업실적 부진을 겪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조선업(-1791.9%), 화학업(-81.9%), 섬유업(-52.8%) 등 7개 업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가스업(732.5%), 자동차업(507.7%) 등 8개 업종에서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늘었다.

고환율, 고금리, 높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0대 기업의 올 3분기 누계 원재료비 31.3%, 인건비 지출도 10.6% 증가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침체 위기에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세계 개선·노동 개혁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2mj@

LG전자, 11년 연속 DJSI 월드 지수 편입

ESG 경영 능력 인정받아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11년 연속으로 ESG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11일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ESG 경영 상위 10% 기업을 선정하는 ‘DJSI 월드’ 지수에 11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다.

DJSI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책임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DJSI 월드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수준 상위 10%에만 주어지는 지표다.

LG전자는 ‘환경(E)’ 항목에서 ‘탄소중립

2030’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물 사용량 감축, 재활용률 확대 성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S)’ 항목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다양성 정책 수립 및 포용적인 조직 문화 구축, 유연한 인재 관리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지배구조(G)’ 항목에서는 이사회 역량지표(BSM) 공개,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다양성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민재 기자 2mj@

CJ대한통운, 서소문사옥 떠나 ‘종로시대’ 개막

‘타워8’로 이전...오늘 업무 시작

CJ대한통운은 51년 동안 사용했던 서소문사옥을 떠나 종로시대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서울시 종로구 중로5길 7(정진동)에 있는 ‘타워8’로 이전해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타워8’은 지하 7층, 지상 24층 건물로 CJ대한통운은 이중 12개 층을 사용한다. 서소문사옥은 인근 사무용 건물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된다.

종로사옥은 혁신기술기업을 지향하는

CJ대한통운의 스타일에 어울리도록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자유좌석제 등이 적용됐다. 노트북, 휴대폰, 전화기 등 모든 장비가 무선으로 연결되고, 직원들은 온라인 시스템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자신이 일할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좌석은 공동업무에 적합한 협업형과 도서관 같은 집중형, 대화가 필요한 일반형으로 구분돼 자신의 업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층에는 고객과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의미를 담아 고객 라운지와 회의실, 카페테리아와 안마의자 갖춘 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스포츠 직관’ 더 생생하게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 공식 파트너 활약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스포츠 현장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청각을 넘나드는 총체적 경험 제공의 매개체인 ‘스마트 사이니지’가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3년 연속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1위를 수상 중인 삼성전자는 8월 오픈한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 (Swiss Life Arena)의 공식 디스플레이 기술 파트너로 활약했다.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아이스하키팀 ZSC 라이온즈(ZSC Lions)의 홈구장이자 종합 복합 문화 공간이다. 삼성전자는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에 유럽 최대 규모의 큐브형 LED 사이니지와 스마트 사이니지 솔루션인 매직인포 솔루션 등을 공급해 더 몰입감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운영 효율을 높였다.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는 LED 다이오드 1800만 개 이상의 669㎡(제곱미터) LED 사이니지를 설치한 이번 협업으로 북미 지역 내셔널 하키 리그(NHL)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위스의 대표적인 스포테인먼트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큐브형 디스플레이’는 경기장 중앙에 416㎡에 달하는 LED 사이니지가 360도 큐브형으로 설치됐다. 이는 유럽 최대 규모로 1만 2000석의 경기장 어느 자리에서도 최고의 시야각을 자랑한다. 대기 중인 선수들부터 좌석의 관중들까지 경기장의 모든 이들이 현장감 넘치는 화면을 생생하게 시청할 수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 경기장 중앙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큐브형 LED 사이니지의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유럽 최대 규모 LED 사이니지
경기장 중앙에 360도 큐브형 설치
조명·소음 속에도 현장감 높여**

**경기장 내 240개 디스플레이 설치
클라우드 솔루션 ‘매직인포’ 활용
광고·정보 등 콘텐츠 원격 관리**

있다. 업그레이드된 삼성의 LED 기술은 현장의 강한 조명과 소음 속에서도 선명한 화면과 실제에 가까운 현장감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한다.

경기장 내부에도 대형 LED스크린과 오디오 장비가 구축돼 역동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아레나 내부 2층 발코니 전체를 감싸는 리본 보드(띠 전광판)는 높이 0.72m, 가로 286.56m에 달하는 크기로 200개 이상의 LED 스크린을 연결해 2000니트에 달하는 밝기를 선사한다. 3층

관중석에서도 각종 이벤트, 선수 소개,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 노하우가 가득 담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매직인포’를 통해 경기장 내 사이니지를 24시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경기장 전역에 설치된 모든 디스플레이의 콘텐츠 원격 관리는 물론 광고, 고객 정보 등을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에 용이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 설치를 넘어

관객부터 직원, 관계자 등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의 모든 방문자가 어디서든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제품과 솔루션을 공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각 공간에 최적화된 240개의 디스플레이를 △플레이어스 클럽 △중앙홀 △비즈니스 클럽 △스포츠 클럽 △프레스룸에 탑재하고 선명한 정보 전달과 몰입감이 필요한 대강당에는 ‘더 월’ (IWA)을 설치했다.

다니엘 페리셋(Daniel Perisset) 삼성 전자 스위스 법인 CE&IT 팀장은 “ZSC 라이온즈와 AV 솔루션 파트너인 빌트앤톤(Bild & Ton)과의 협력을 통해 스위스 라이프 아레나를 가장 현대적인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테인먼트 산업이 스포츠 팬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팀 뉴욕 메츠 (Mets)의 홈경기장인 시티 필드(Citi Field)에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돼 주 전광판을 비롯한 약 1300개의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했다.

또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SoFi) 경기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스크린으로 면적만 6500㎡, 축구장 1개 면적에 달하는 초대형 360도 원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스포츠 집관’ 더 실감나게 비대면 확산에 ‘거거익선’ 트렌드 앞장

삼성 ‘Neo QLED 8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었다. 특히 경기장이 아닌 집에서 TV로 경기를 시청하는 ‘집관’은 당연한 일상이 됐다. 이와 함께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 트렌드도 지속하고 있다. 초대형 프리미엄 TV의 강점은 스포츠 축제 시즌에 빛을 발한다. 삼성 네오(Neo) 퀀텀닷발광 다이오드(QLED) 8K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대화면, 또렷하고 선명한 8K 초고해상도 화면, 실감 나는 사운드로 차원이 다른 디테일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옮겨올 거실에서 Neo QLED 8K로 스포츠 경기를 직관해보는 것은 어떨까.

◇ 몰입감 극대화하는 인피니트 디자인= Neo QLED 8K의 초대형 화면은 마치 눈앞에 경기장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최대 85형(214cm)으로 벽면을 넓게 채우는 Neo QLED 8K로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하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시야에 가득 차는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초고화질 콘텐츠가 기존 TV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스포츠 관람의 재미와 몰입감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Neo QLED 8K만의 ‘인피니트 디자인’도 압도적인 몰입감에 큰 몫을 한다. 2.3mm의 베젤(화면 테두리)로 화면 안과 밖의 경계를 최소화한 인피니트 스크린을 적용해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 마치 극장과 같이 벽면에 스크린만 걸어놓은 것처럼 보여 볼수록 빠져드는 대화면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전면뿐 아니라 측면에서 볼 때도 약 1.5cm 두께의 인피니트 슬림 디자인과 리얼 메탈 소재의 모



삼성전자 Neo QLED 8K는 돌비 애트모스와 무빙 사운드 프로+ 등으로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2.3mm 베젤의 인피니트 디자인
화면 안밖 경계 최소화 몰입감↑
명암비 4배 향상 디테일 극대화
해상도 낮은 영상도 업스케일링
돌비 애트모스·Q 심포니 등
풍부한 사운드 통해 생동감 더해**

던한 스탠드로 어떤 설치 환경에서도 미니멀하게 어우러진다. 디자인적으로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 온전히 스포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집에서 전 세계가 함께하는 초대형 스포츠 축제 현장에 있는 듯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 8K 초고화질로 경기 현장 만개= Neo QLED 8K는 현존 최고 해상도인 8K 초고화질로 스포츠 경기의 짜릿한 순간들을 극대화하고 경기장 구석구석 작은 부분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4K보다 4배 더 많은 촘촘한 픽셀로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구

현해 경기에 몰두한 선수의 미세한 몸짓과 긴장한 표정까지 디테일하게 포착한다.

‘Neo 퀀텀 매트릭스 프로’ 기술로 초소형 ‘퀀텀 미니 LED’를 촘촘하게 배치해 빛을 정교하게 컨트롤한다. 또 14비트(bit) 프로세싱으로 명암비를 기존 4096단계(12비트)에서 4배나 향상된 최대 1만6384 단계로 표현해 가장 어둡거나 가장 밝은 장면에서도 극대화된 디테일을 보여준다. 더욱 완성된 업스케일링 기능으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시청할 때도 걱정 없다.

또한 ‘Neo 퀀텀 프로세서 8K’ 기술로

스스로 화질을 분석한 뒤 20개의 뉴럴 네트워크 중 가장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를 선택해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8K급으로 업스케일링 한다. 더불어 2개의 뉴럴 네트워크는 사물의 영역과 모양을 분석하고 명암비를 강화해 3차원 깊이감을 구현한다. 역동적으로 뛰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앞에서 보는 듯 지켜볼 수 있다.

◇ 현장감 가득한 시네마틱 사운드=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인 사운드도 스포츠 경기 시청의 질을 좌우한다. Neo QLED 8K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리얼한 사운드로 경기 시청의 몰입감을 한층 올려준다. 실제 상방향 스피커가 포함된 멀티채널의 ‘돌비 애트모스’ (Dolby Atmos)로 리얼한 시네마틱 사운드를 구현해 박진감 넘치게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입체 사운드가 형성되는 ‘무빙 사운드 프로+’ (Object Tracking Sound Pro+)도 갖춰 공의 마찰음, 심판의 휘슬,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까지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 실감나게 전달한다.

TV의 모든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Q 심포니’를 더하면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풍성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로 업그레이드된다. 주위의 소음에도 영상 속 대화 소리만 추출해 증폭시켜주는 ‘액티브 보이스’는 소음 속에서도 리포터의 해설이나 승리를 거둔 선수들의 벽찬 소감까지 또렷하게 전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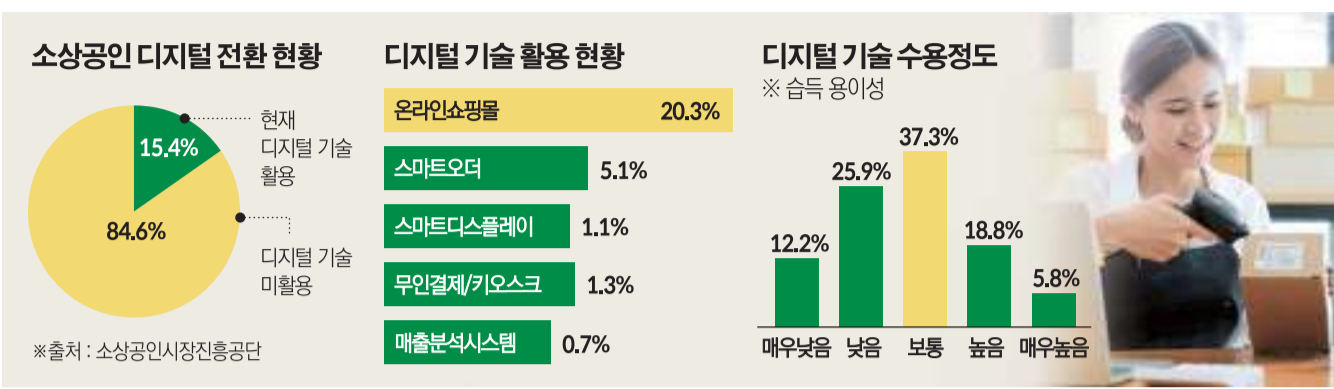
온라인 매출 느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15%뿐

산업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등 판로를 비롯해 결제, 매장 운영, 재고관리 시스템 등 전방위적으로 체질개선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의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고집하는 소상공인들이 곧 도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흘러나온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로봇, 무인결제,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쇼핑 증가가 가속화하면서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는 오프라인을 앞섰지만, 코로나19 이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 같은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과 수용 정도는 현저히 낮다.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디지털화 의지·기술 활용도 낮아 전통 영업방식 고수 땀 도태 위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5.4%에 그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7.6%) 등에서 활용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 디지털 전환에 나선 소상공인도 활용 기술 대부분이 온라인쇼핑몰(앱 포함 20.3%)에 집중됐다. 무인결제·주문형 키오스크(1.3%)도 여전히 1%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3명

온라인 쇼핑몰·앱·라이브커머스 매출과 직결된 디지털 지원 원해

(29.7%)에 불과했다. 디지털 전환 준비 수준도 인프라(3.12점)를 제외한 자금(2.21점), 인력(2.38점), 지식(2.53점) 모든 항목에서 총체적으로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의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공동 작성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육성방안 연구'에서 "소상공인

소공연, 우수사례 공유·기술 보급 소상공인 디지털화 '멘토링' 강화

은 기업 규모 면에서 가장 끝 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 경영을 정상화하기에는 자본, 자금조달, 시스템,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 범위에 머물러 세밀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입사 기피업종과 인건비 부담업종에 로봇을, 판매에선 스마트 미러와 스캐너바구니를 활용한 매장 내 바코드 결제를 제시했다.

다만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들은 실질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판로나 홍보에 대한 디지털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스마트오더·디지털디스플레이 등 서비스 개선보다 온라인쇼핑몰이나 앱, 라이브커머스 등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더 중요시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멘토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부스를 마련했다. 치킨 로봇과 주문받은 커피를 제조해 픽업대로 전달하는 바리스타 로봇, 서빙로봇 등이 줄줄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소공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고객분석 등 데이터 구축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성과 공유 등 디지털 전환 확산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22-D4096호 (2022. 11. 15 - 2023. 11. 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8-2931호 (2022. 11. 15 - 2023. 11. 14)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립원 학생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핫트랙스, 영웅산고, 만디엔투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련일련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에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합의로부터 중요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권 상용일에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온라인 기본 주식매매수수료는 0.145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전략

- 1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
 - 스마트화 R&D, 스마트기기 확충, 투자자금 지원 등 필요
- 2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
 -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플랫폼 진출, 전자결제 시스템 등 지원
- 3 인식이 부족해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
 - 디지털기초장비 보급,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등 지원

“디지털화 역량·수준에 맞는 3단계 ‘핀셋지원’ 정책 필요”

전통방식 고수하는 소상공인에 디지털화 인식 개선·컨설팅 필요

필요는 느끼나 활용도 낮을 땐 디지털 장비 지원·기술 교육

스스로 디지털 전환 가능하다면 투자 자금·스마트인력 활용 지원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거나 스스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 △인식이 부족해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정책을 적용하는 맞춤형 방식이다.

이미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거나 스스로 전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스마트오더와 디스플레이, 무인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추고 활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5%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해선 자체 역량을 발휘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보고서에서 "스마트화 R&D, 스마트기기 확충, 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스마트인력 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역량을 충분히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현장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아직 디지털화 수준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영업에 필요한 디지털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활용도 또한 낮은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다. 남 연구원은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플랫폼 진출, 제로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부터 갖추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인식 부족 및 전통방식 고수'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그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에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부터 심어 주고,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게 육성하는 체계가 시급하다. 디지털화가 가능한 기초장비를 보급하고 인식개선과 교육·컨설팅, 콘텐츠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복합결제 단말기 보급 등 인프라 확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배송체계 구축,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이 꼽힌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시행에 앞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 플랫폼 내 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와 불공정 등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장치와 디지털화 과정에서 막대한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스마트기기 개발과 보급, 지자체의 참여 유도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위믹스 생태계 지속·소송전 '투트랙'... 신뢰회복은 숙제

위믹스 미래는 상

메인넷 기반 NFT·DAO 박차
해외 거래소 상장·바이백 계획
'미르M' 블록체인판 CBT 시작
게임 성패에 로드맵 방향 갈려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위믹스 생태계와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상장, 공시 시스템 강화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진행 중이던 위믹스3.0 사업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가 꿈꾸는 '위믹스 생태계'는 독자 메인넷 '위믹스 3.0'을 기반으로 한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와 탈중앙화 금융 '위믹스 파이', NFT(대체불가토큰)와 DAO(탈중앙화자율조직)를 결합한 플랫폼 '나일(NILE)' 등을 연이어 오픈하며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중이었다.

이 같은 구상은 위믹스의 '초과 유통량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일지

- 10월 27일 박사, 위믹스 투자유의중독 지정
- 11월 24일 박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 30일 위메이트, 법원에 4대 거래소 대상 가처분 신청
-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위메이트 가처분 신청 심문
- 7일 서울중앙지법, 위메이트 가처분 신청 기각
- 8일 국내 4대 거래소, 오후 3시 위믹스 상장폐지



문제'로 촉발된 국내 4대 거래소 상장 폐지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장현국 위메이트 대표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토코노믹스(토코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믹스 팀은 유통량 문제가 지적된 이후부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코인마켓캡 유통량 자동 연동 △바이낸스 커스터디 △평균 모니터링 파트너십 등을 진행하며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또한 커뮤니티 AMA(Ask Me Anything)를 정기 개최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7일에도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계획'을 공지하며 법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 전개와 에코시스템 구축 수행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실제로 위믹스는 4대 거래소 거래지원이 종료된 8일 저녁에 국내 거래소 바닥에 상장됐다. 그 밖에도,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상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9일에는 1000만 달러 규모 바이백 진행 소식도 공유했다. 바이백은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시간 분할 균등 주문 방식'을 통해 전세계 상장 거래소와 위믹스 파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위믹스3.0 모든 플랫폼 수익과 재단 투자 수익의 25%를 분기별로 소각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중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신뢰 회복과 함께 실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진행 중인 사업에 힘쓰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상황과 별개로) 기존 사업이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계속 가야 한다는 게 현재 회사 기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까지 '미르M 글로벌', '에니팡 시리즈',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을 글로벌에서 출시하고, 내년 1분기 내에 100개 게임을 온보딩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8일에는 6월 국내에서 출시된 바 있는 미르IP(지식재산권) 신작 '미르M'의 블록체인 버전 CBT(비공개베타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9일 기준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2개 서버를 운영 중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은 대기열이 3000명 이상 형성될 정도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믹스 생태계의 방향은 결국 위메이드의 신뢰 회복 노력과 진행 중인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성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위믹스 주장대로 신뢰 회복된다면 해외 가격 상승 및 국내 재상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신뢰 회복에 따른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국내 거래 불가능하다고 플랫폼 사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 좋은 게임이 들어오면 가상자산의 가치와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신뢰 회복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업종	투자 대상	시리즈
유통	영화 드라마 VOD서비스	시리즈D
한국산용데이터	캐시노트(재무, 회계 서비스)	시리즈E
짜각악어	교육 매칭 플랫폼	시리즈B
지니웍스	광고 커머스 플랫폼	시리즈B
에누마	초등 게임기반 학습 앱	시리즈C

OTT 강화 꺾이는 LG유플러스 비통신 사업 투자 광폭행보

400억 규모 '유통' 인수 나설듯
콘텐츠 등 비통신 12곳 투자
'비통신 5년 내 기업가치 12조'

LG유플러스가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 경쟁권 인수에 나섰다. OTT플랫폼 투자·인수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인재를 배치하는 등 비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최근 유통을 인수하기 위한 가격 등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최종 협상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유통이 발행하는 신주를 LG유플러스가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식이 유력하며, 비용은 약 400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유통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 대형 OTT와의 경쟁에 밀려 영업적자가 대폭 확대된 데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투자 난항을 겪어왔다.

LG유플러스가 유통을 품게 되면 이통업계는 OTT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튜디오X+U'를 두고 산하에 '콘텐츠제작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OTT 플랫폼을 인수하게 되면 콘텐츠 공

급도 수월해져 단숨에 OTT 업계 강자로 떠올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인터넷TV(IPTV) 기반 키즈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를 OTT로 전환하며 오는 2027년까지 OTT 서비스의 국내의 가입자 수를 1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이들나라를 분사해 VC와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 유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올해들어 비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12곳에 투자를 단행했다. 그동안 LG유플러스가 투자한 기업이 28곳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을 올해 투자한 것이다. 투자 목록을 살펴보면 콘텐츠와 기업간거래(B2B) 등 LG유플러스의 비통신 사업 영역과 연관이 깊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비통신사업 매출을 2027년까지 40%까지 늘리고 기업가치를 12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투자한 짜각악어,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에누마, 호두랩스 등은 '아이들나라'와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교육 관련 기업이다. 올초 투자한 OTT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즈와 협업을 통해 'OTT 콘텐츠 랭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업계가 탈통신을 선언하고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위믹스 상장' 두고 고민 빠진 중소 거래소

지닥, 상폐 2시간반 만에 상장
상폐되자 거래소 거래 지원
중소 거래소 위믹스 유치 검토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 중소 거래소들이 위믹스 상장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장 침체로 마땅한 성장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위믹스가 거래량이 많은 만큼 신규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다만 위믹스가 유통량 공시를 두고 투자자 신뢰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울이는 곳도 있다.

11일 분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위믹스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닥은 8일 오후 5시 30분 위믹스를 상장하고 입금 및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4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 지 2시간 30분 만이다. 위믹스가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자마자 바로 거래 지원을 시작한 셈이다.

지닥 이유리 부대표는 "위믹스 재단 측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장 신청을 했고, 관련 지원팀이 검토 후 심의위 과정을 거치는 등 사전에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상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닥 측은 정확한 심사 준비 기간에 대해 밝히길 꺼렸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며 상장 이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시장활성화, 심의사실 개선 등의 이유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지닥의 상장을 두고 사실상 새로운 투자자 유입을 노린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내 중소 거래소 A사 관계자는 "위믹스가 거래량이 많은 코인이다 보니, 4대 거래소에서 빠지고 그 거래량을 당겨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내부 검토는 (거래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 연합뉴스

소마다) 다 한 번씩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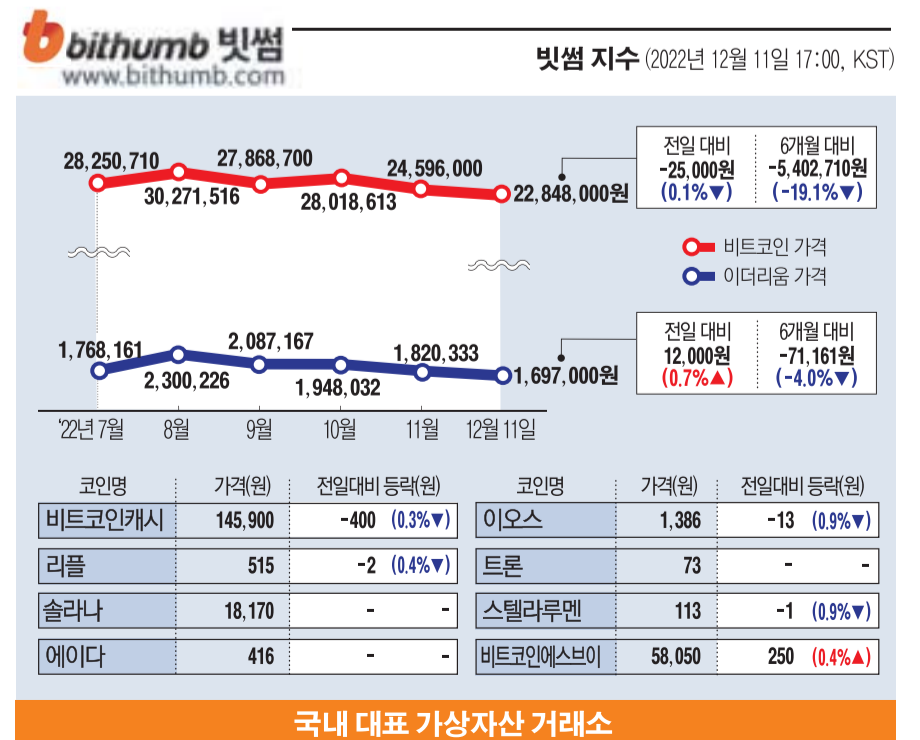
또 다른 거래소 B사 임원은 "아직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원화 계좌가 된다고 하면 위믹스를 상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업비트의 거래 비율이 85~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또 크립토 윈터로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 거래소로서는 신규 고객을 끌어

모을만한 마땅한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각 거래소마다 시중 은행과 물밑에서는 의를 이어가며 원화마켓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원화마켓 도입이 해결사는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고팍스가 올해 4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며 원화마켓을 열었지만, 거래량과 시장 점유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고팍스가 원화마켓을 도입하기 직전인 4월 27일 2일 기준 거래량은 281만7774 달러였으나 이달 9일 오후 같은 시각 거래량은 187만6086달러로 줄었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코파이 출금 중단 등 크립토 윈터 상황 속 여러 부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거래소 C사 관계자는 "원화마켓 도입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등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하고 있지만, 원화마켓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은 모두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중소 거래소로서는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우리 기자 inglass@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작년 집값 상승분 반납한 강북... 송파·강동도 위태

서울 아파트값이 28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태세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은 이미 지난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지역에서도 송파구와 강동구는 올해 하락률이 지난해 상승분을 앞지르기 일보 직전으로 나타나는 등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분석 결과, 이달 5일 기준 서울의 올해 누적 매매가격변동률은 -5.21%로 집계됐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6.42%로 올해 누적 집값 하락률이 1.21%포인트(p) 이상 추가 하락하면 지난해 누적 상승률을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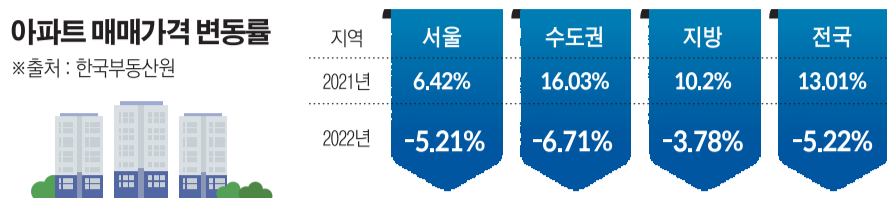
최근 수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내림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매주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5일 기준 매매가격 하락률은 -0.59%다. 2주 전인 지난달 28일 기준으로는 -0.56%를 기록했다. 단 2주 만에 1.11% 하락한 것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미 지난해 상승분

서울 아파트값 28주 연속 하락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이
작년 집값 상승분보다 더 떨어져
송파구 -6.09%·강동구 -5.05%
강남지역도 마이너스 전환 '눈앞'

을 모두 반납한 지역도 10곳에 달한다. 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5일까지 도봉구와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금천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강북구는 지난해 누적 상승률보다 더 큰 누적 낙폭을 기록했다.

도봉구는 올해 8.73% 하락해 지난해 상승분 6.33%를 모두 내렸다. 성북구는 7.53% 떨어져 지난해 5.5% 상승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은평구도 7.15% 하락해 지난해 상승분 5.55%보다 1.6%p 더 내렸다. 강북구는 올해 7.14% 하락해 지난해 상승률 3.84% 대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밖에 서대문구(-6.67%), 중구(-6.35%), 종로구(-5.72%), 동대문구



단지명	위치	전용면적	최근 실거래가	신고가
창동주공3단지	도봉구 창동	41㎡	4억5000만원 (11월 24일)	6억5000만원 (지난해 11월)
DMC파크뷰자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84㎡	12억1000만원 (11월 3일)	14억3500만원 (지난해 10월)
고덕 그라시움	강동구 고덕동	84㎡	13억9000만원 (11월 6일)	18억9000만원 (지난해 10월)

(-5.39%), 금천구(-5.53%), 중랑구(-5.05%) 역시 지난해 상승률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난해 상승률을 넘는 하락 폭을 기록한 지역은 대부분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까지 중저가 단지 매수가 집중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의 낙폭이 도드라졌다. 노원구는 올해 누적 8.84% 하락해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률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누적 상승률 기준 9.68%로 상계 결과 마이너스

를 기록하진 않았다.

강북지역 내 집값 급락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전용면적 41㎡형은 지난달 24일 4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1월 6억5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일 년 만에 2억 원 하락한 셈이다. 서대문구 대표단지인 'DMC파크뷰자이' 전용 84㎡형 역시 지난달 3일 12억1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0월 신고가 14억35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 급락했다.

강남지역은 지난해 상승률과 올해 하락률을 상계한 결과 마이너스 전환 지역은 없었다. 다만, 송파구(-6.09%)와 강동구(-5.05%) 등 핵심지역은 마이너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송파구는 지난해 8.79% 올랐고, 강동구는 5.87%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형은 지난달 6일 일 년 전 신고가 18억9000만 원보다 5억 원 급락한 13억9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내림세가 이어졌다.

반면 서초구는 올해 1.35% 하락하는 데 그쳤고, 강남구 역시 3.00% 내려 선방했다. 지난해 서초구는 8.56%, 강남은 8.29% 상승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뒤집긴 어려운 만큼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라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할 조건이 전혀 없다"며 "반약 집값이 대출이자보다 비용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대출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집을 사겠지만, 지금은 심리가 꺾여 어렵다"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안전진단 완화, 화재 뚫지만 매매는 커녕 문의조차 없어요”

르포 목동신시가지 가보니

14개 단지 모두 통과 가능해져 “사업 속도 낸다” 기대감 높지만 매매시장 ‘잠잠’...큰 변화 없어 “금리 등 외부요인에 시장 침체 당장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경.

“아무리 화재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다 금리가 높아서 집을 살 수 없어요. 올해는 매매는 커녕 문의조차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일대 부동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9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단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이 잠잠했다. 전날 정부가 이곳 일대 단지를 일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조합에서는 규제 완화로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인근 B공인 관계자는 “9단지는 올해 들어 매매가 8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화재도 부동산 시장 호황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안전진단 완화 발표 소식 이후 매수 문의가 온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동 신시가지 일대 노후 단지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일대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 절차를 모두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뿐이다. 1·5·7·8·10·12·14단지는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한 상황이고, 9단지와 11단지는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다만 이번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9단지와 11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목동 8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정확한 고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재건축 시작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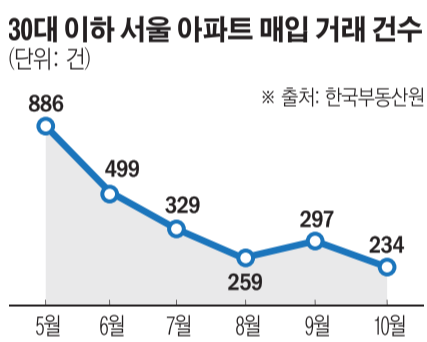
이종현 목동9단지 재준위원장 겸 목동아파트 재준위 연합회(목재련) 회장은 “발표대로라면 9단지는 다시 주민 모금부터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가 재건축 1호 공약을 지켜줘서 목동 일대 재건축에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전진단 완화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여전히 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전진단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민용 기자 pmw7001@

2030 ‘영끌’ 끝? ...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올 최저

10월 234건... 한달새 21% ↓
전달 소폭 늘었다 다시 감소세
노원구, 반년새 89건→17건 폭



등 감소하다 9월 297건 소폭 상승한 뒤 다시 10월 234건으로 최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서울 외곽지역으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노원·도봉구 지역에서 거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 89건에서 10월 17건으로 81% 급감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29건에서 7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입거래 4434건 중 약 50% (2185건)가 30대 이하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정부가 8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30대 이하 생애최초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매수인은 총 2만1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67명 대비 56% 급감한 수치다.

박민용 기자 pmw7001@

금주의 분양캘린더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9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총 20개 단지에서 7982가구(일반분양 201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송정중흥S-클래스파크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울산 중구 북산동 '변영로 서한이더움 프레스티지' 등에서 청약약을 진행한다.

총 18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12일에는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 이스트파크'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15일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5곳이다. 경기 양주

시 회정동 '양주 덕정역 한리비발디 퍼스티어'는 14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는 16일까지 청약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5곳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정역' 등 5곳이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2/12 (월)	접수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4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15)	12/14 (수)	경기	부천시	여월동	브라운스톤여월 2순위				
					고양장항A5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15)									
					수원당수A2(행복주택) (~12/15)									
	발표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A53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15)	12/15 (목)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2(신호희망타운)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성남북정1A3(신호희망타운)									
계약	경기	양주시	회정동	양주덕정역한리비발디퍼스티어 (~12/14)	12/16 (금)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A3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12/14)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12/13 (화)	접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역한양수자인리버파인 1순위	12/17 (토)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B3(사전청약) (~12/21)				
	발표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숨메디시앙					12/17 (토)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1(공공분양) 1순위 (당해지역)
	계약	강원	원주시	신안동	전남대입구산이고은신용PARK									서울
12/14 (수)	접수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송정중흥S-클래스파크뷰 2순위	(주)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B3(사전청약) (~12/21)	(주) 2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역한양수자인리버파인 2순위

※자료:부동산R114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고금리 적금 해지’ 촌극에… 금감원, 상호금융 특판 점검

기준금리 상승에 업계 경쟁 과열
잇단 年 8~10%대 특판 해지 읍소

당국, 업계와 후속대책 마련 추진
금리·한도 등 시스템 점검 지시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 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

최근 고금리 특판 상품 해지 읍소 사태		
상호금융	금리	내용
남해축산농협	연 10.35%	직원 실수로 비대면 판매되면서 1000억 원 이상 예수금 유입됨
동경주농협	연 8.2%	하루 만에 만기 시 돌려줘야 할 금액 5000억 원에 달함
합천농협	연 9.7%	최대가입금액 없고 비대면으로 다수계좌개설 가능해 문제 발생, 이자지급 포기 선언함
사리산협	연 7.5%	직원 실수로 정액적립식 상품에 제공하려던 특판금리를 자유적립식 적금에 적용해 문제 발생

출처: 상호금융업계

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000억 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영세한 지역 조합이 연 이자 비용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

이 유지된다. 이들 조합은 지역민을 주 입자로 예상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가입자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그에 따른 금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특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는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상태다.

또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출시 즉시 ‘오픈런’이 벌어지던 고금리 특판의 출시는 금융당국의 상호금융권 금리 경쟁 리스크 관리·감독에 따라 당분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금리인지, 역마진은 안 생기는지,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뒤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디지털화폐 시대, 은행 역할 더 중요해질 것”

금융부 보고서

“고객과 점점·CBDC 유통 등
실물화폐 매커니즘과 비슷해
기능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은행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고,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디지털화폐와 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화폐 체제 아래에서도 은행은 법정화폐의 유통을 담당하고 민간 디지털화폐도 발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화폐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래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준(準)화폐인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 중심으로 재편·발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발행되더라도 은행의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이 고객과의 접점 역할을 하며 CBDC의 배포와 환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CBDC 보유환도 설정,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여타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 은행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민간발행 화폐로 기능할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은행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은행이 예금과 유사한 성격 을 갖는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이미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예금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의 자금조달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준 화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CBDC 도입과 여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은행예금이 일부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법정화폐와 이를 근간으로 창출되는 은행예금으로 구성된 현재의 이중통화시스템에서 은행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형성될 새로운 디지털화폐 체제 아래에서도 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민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하영 기자 haha@



김광수(왼쪽) 은행연합회 회장이 9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 김흥준 사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육군 장병들에 위문금 전달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육군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빈틈없이 수행

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매부대와외의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1969년부터 육군 제5보병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복현 원장, 임직원 자녀에 ‘금감원 소개’ 직접 나선 까닭

금융인사이트

이 원장, 조직 내부소통 강화 차원
16일 ‘FSS 패밀리데이’ 개최 주도
행사 신청 접수 쇄도 폭발적 반응

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가족들 모두가 회사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며 “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자녀들과 연말에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줄곧 ‘소통’을 강조해왔다.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며, 내외 부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검찰 출신인 탓에 생긴 고압적인 이미지를 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직원들과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젊은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말에도 체력단련실을 열어달라’는 의견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시행한 전일 자율복장제도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외부 소통도 강화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취약자 주들을 직접 만나 각각의 사연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금리 인상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공보실의 ‘브이로그 데뷔’ 제안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담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며 “간담회 끝나고 여러 문제가 있다면 연락해달라. 제가 직접 받겠다”고 인사한다. 감독원의 업무를 브이로그에 나와 소개한 것도, 이러한 영상을 찍은 것도 역대 금감원장 중 이 원장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내주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다. 또 한 번의 세대교체가 예고된다. 앞서 이 원장은 금감원에 온 지 3개월 만에 한 부서장 인사에서 ‘첫 40대 부서장, 공채 1기 부서장’ 등 눈에 띄는 인사를 단행했다.

서지연 기자 sjy@

손태승 “내년 상반기까지 리스크 관리 집중”

경영계획 수립 워크숍서 강조 “취약계층 상생 프로젝트 앞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비상경영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9일 서울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2022년 경영성과 리뷰 및 2023년 경영계획 수립 워크숍’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세계 제로의 경영 환경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은행 등 14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등 영업주력 자회사들과 함께 위기 시나리오에 대비해 내년 2분기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경영을 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관찰해 위기 상황에서도 증권·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우리금융만의 기회는 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 회장은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23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상생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힘든 시기인 만큼 우리금융이 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전 그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8월 우리금융그룹은 ‘저신용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원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년·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23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상생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디지털 시장, 비금융업에서의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워크숍 총평에서 “디지털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도하고 비금융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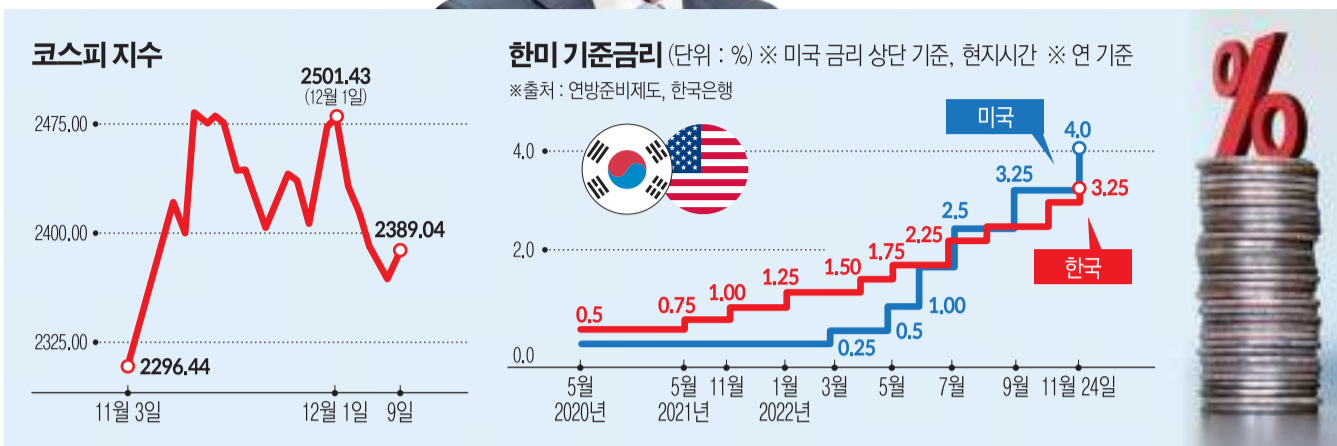
유하영 기자 haha@

코스피 '산타랠리' 향방 14일 '파월 입'에 달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코스피 美 금리·CPI에 짓눌려
시총 상위 종목 목표주가 하향
12월 FOMC 50bp↑ 점치지만
최종금리 상향에 빅스텝 전망도
시장 불확실성은 점진적 해소
CPI 0.3~0.4% 소폭 안도 랠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에 방향을 못 잡고 눈치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대와 달리 더 강한 긴축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에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2400선 아래로 다시 주저앉았다. 갈피를 못 잡는 증시는 올해 마지막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전날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CPI 상승률 컨센서스(전망치)는 전월(7.7%)보다 둔화한 7.3%다.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6.3%)보다 둔화한 6.0%로 예상된다. CPI 상승률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립적일 수 있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명분도 충분하다. ◇목표가 뚝뚝...장외기업 주가는 곤두박질 = 국내 증시는 FOMC 회의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짓눌려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시총)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증권사 목표주가를 살펴본 결과 연초와 비교해 지난 8일 기준 평균 17.5%씩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목표주가가 연초보다 떨어졌다. 연초 대비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케미칼 2곳뿐이다.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올 초부터 현재까지 거래되는 14개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올해 1월 초 기준

45조8691억 원에서 이달 9일 19조5073억 원으로 57% 줄어들었다. 개별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보면 기업가치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문투자자 종목이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주당 가격이 작년 말 14만3000원에서 이달 9일 3만9700원으로 72.2%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쉐어는 올 해 1월 25일 11만5000원에서 이달 9일 3만6000원으로 73.4% 떨어졌고,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는 올해 3월 8일 2만34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1만2000원 수준으로 48.7% 내렸다.

◇12월 50bp 인상 전망...내년 최종금리 5% 웃돌 수도 = 국내 증시는 긴축 완화 기대와 경기침체 우려가 엇갈리며 관망세

를 보이다 CPI 발표와 FOMC 이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12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가 50bp(bp=0.01%)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호한 흐름과 임금 오름세 등을 고려할 때 최종금리 수준은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빅스텝 단행 이후 2월 빅스텝을 이어가는 동시에 3월과 5월에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금리인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2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수준이 4.75~5.0% 수준을 예상하는 확률이 49.5%로 추가 빅스텝을 높게 보고 있다"라며 "물론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의미하는 5.25~5.5% 정책금리 확률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

단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최종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최종금리는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부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했다.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여백에 성공하려면 2024년까지 5% 이상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CPI와 FOMC 후 불확실성이 해소 될 것으로 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 금리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의 현재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12월 FOMC 이후 동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핵심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 기준 0.5% 이상을 기록할 경우, 최종금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반면, 시장 컨센서스인 0.3~0.4%에 부합하면 시장에 대체로 중립적 혹은 소폭의 안도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0.2% 이하를 기록할 경우, 최종금리 하향조정·연준 피벗(pivot·정책전환)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이 재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불확실성 시대 자산 증식방법 한화운용 라이프플러스 TDF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확정 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확정금리 상품에 편중된 투자는 향후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경기 사이클은 항상 순환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인된 자산에 투자한다면 향후 확정금리 상품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타겟데이트펀드(TDF)가 떠오르고 있다. 금융 전문가가 내 나이에 맞는 자산배분을 설계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이 선보인 한화 라이프플러스(Lifepus) TDF가 대표적이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타겟으로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절하여 운용해주는 펀드다. 미국 JP모건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주식자산과 채권자산에 각각 다른 환전락을 펼쳐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상품으로 적절하다.

리서치센터장에 묻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윤지호 본부장



사진제공 이베스트투자증권

"증시가 바닥을 지나면서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 윤지호(사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한국 증시를 '상고하고'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포스트타워에서 만난 본부장은 "상고하고는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하단을 높이며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내년 코스피 지수는 경교한 하단을 바탕으로 2200~2700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증시에 대해 윤 본부장은 "지수가 말해주지 않았다. 지난해 3300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130 수준까지 빠지는 등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며 "이를 촉발한 것은 금리였다"고 평했다.

이어 "금리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쇼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컸다"며 "금리가 움직이니까 가상화폐 시장도 무너지는 등

“바닥 다진 증시 내년엔 상고하고... 최고 2700 예상”

금등 아닌 완만한 상승 전망 물가 안정되면 금리도 잡혀 중국 등 新공급망 이슈 변수

시장 성격 자체가 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더불어 "내년 물가가 안정되며 금리가 잡힐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차별화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증시 전망을 놓고 "상저하고, 상고하저가 아닌 상고하고라고 전망한다"며 "지수가 급격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견고한 밑단을 기반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

가 많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2200~2300을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시 상승의 장애물로 윤 본부장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나오는 것이 걱정된다"며 "가능성은 작지만, 또 다른 전쟁이 터지거나 중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등 새로운 공급망 이슈가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본부장은 경기침체와 변동성이 예상되는 내년 증시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결과가 아닌 원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가는 펀더멘털 변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만 따르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이라며 "과거 지나치게 경기가 좋아 보일 때 주가가 꺾여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내년 경기 침체가 선명해 보일 때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경제 불확실성 대비... 곳간 채우는 상장사들

삼성전자 7.4兆·현대차 6.4兆↑ 투자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 약재

재계가 곳간에 현금을 쌓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엔진에 투자할 '실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증가 사유는 달러 자산 가치 상승, 투자 유치와 사업 구조조정, 재고조정 등 다양했다. 다만 쌓아두기만 할 뿐, 실제 인수합병(M&A)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본지가 올해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10대 기업(금융사 및 공기업 제외)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늘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32조4100억 원이다. 총자산은 작년 말보다 15.8% 늘어난 237조3000억 원이다.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3분기(7~9월)에만 9조 원 이상 늘었다.

재계 1위인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28조16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7조4200억 원, 6월 말 대비로는 4조

1500억 원 늘었다. 10대 기업 중 작년 말 대비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매출 2위인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보다 6조3600억 원 늘어난 26조10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조6200억 원 늘어 18조6900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현금성 자산은 44조7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K는 22조4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말보다 4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유동성 확보에 나선 곳도 있다. 한화그룹 자동화설비 계

열사인 에스아이티는 10월 서울 종로 소격동 일대 빌딩 네 채를 2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 송현동 필지를 5579억 원에 매각했다.

경기침체는 점점 다가오는데, 국내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시장은 냉랭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회사채(8조2982억 원) 발행은 전월 대비 49% 감소했고, 주식발행(4875억 원) 규모는 36.1% 줄었다. 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총 112조9208억 원으로 전월 대비 8.8% 감소했다.

기업의 현금 확대를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자금이 M&A나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의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실적·신용 꺾인 롯데하이마트... 황영근 거취 '기로'

롯데 캐시카우 매출부진에
실행사 신용등급 하향조정
황대표 임기 내년 3월 만료
이달 중순 임원인사에 촉각

롯데쇼핑 계열사로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했던 롯데하이마트가 흔들리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무 안정성이 훼손되자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황영근(사진) 대표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8일 롯데하이마트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

롯데하이마트 실적 및 재무안정성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전자공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분기
매출	4조1127	4조265	4조517	3조8697	2조6025
영업이익	1865	1099	1611	1068	-72
순이익	855	-999	284	-575	-3801
부채비율	51.2%	61.7%	73.9%	61.1%	81.4%
차입금의존도	20.2%	25.6%	29.3%	25.4%	29.8%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로 조정했다.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1일 한국기업평가, 6일 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은 유지했으나 등급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낮춰 잡았다. 신용평가사들의 판단 근거는 롯데하이마트의 집객력 약화에 따른 수익창출력 저하, 대규모 손실 등에 의한 재무안정성

약화, 향후 실적 반등 및 재무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모아진다. 실제 롯데하이마트 매출은 2020년 4조 517억 원에서 지난해 3조 8697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 줄어든 2조 6025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까지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72억 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최한승 한국기업평가 연구

원은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좋은 프리미엄 가전 판매 감소 및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 창출력이 저하되고 손실실을 내면서 재무안정성도 약화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3분기 누적 3801억 원의 손실실을 기록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

존도가 각각 81.4%, 29.8%로 올랐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과거 우수한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누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나, 실적 부진이 지속할 경우 영업권 손상 인식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에 황영근 대표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그는 롯데하이마트 가전부문장, 상품본부장,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영업통'으로 2020년 8월 선임됐다. 전임 대표에 이은 책임자로 평가됐으나 실제 성적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와 점포 대형화 등을 중점 추진했으나 뜻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롯데그룹은 예년보다 늦어진 이달 중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직원들이 명절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올 3분기 누적 매출 21% 성장 LF푸드, 가정간편식으로 부활

LF푸드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기업간거래(B2B) 위주에서 벗어나 가정간편식(HMR) 등 기업과 소비자간거래(B2C) 사업을 키운 결과다. 이에 LF푸드는 B2C 사업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F푸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약 985억 원으로 작년(813억 원) 같은 기간보다 약 21% 성장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매출은 지난해 실적(1132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7년 LF그룹 자회사로 설립된 LF푸드 주요 사업은 식자재 유통 등 B2B 위주였다. 2017년 식자재 유통기업 모노링크를 인수하며 힘을 실었다. 다만 B2B 중심 사업 구조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1552억 원(모노링크 실적 포함)이었던 LF푸드 매출액은 2020년 1048억 원으로 약 32% 줄었다.

위기 속 LF푸드의 선택은 B2C였다. 코로나19 후 성장세를 기록 중인 HMR 시장을 주목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은 2020년 기준 4조 원으로, 2016년 대비 2배 가량 성장했다. 올해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LF푸드는 HMR 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말 육가공 제조업체 엘티엠프드와 이 회사 도소매 종속법인인 네이처푸드를 인수했다. 엘티엠프드는 육류를 가공한 냉동식품 제조 전문업체다. 신규인력 50여 명을 보강해 B2C



컬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노키친 통통 돈까스 사진제공 LF푸드

영업 강화했다. 프리미엄 수제버거 전문점으로 출발한 크라제는 프리미엄 HMR 브랜드로 재탄생했다. 모노키친도 일식 식재료 전문점에서 홈다이닝 HMR 브랜드로 탈바꿈했다. 라벤 전문점 하코야는 2006년부터 외식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식 가정간편식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LF푸드는 작년 기준 60개 이상의 HMR 신제품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B2C 매출은 전년 대비 85% 성장했고, B2C 매출 비중은 25%까지 올랐다. LF푸드는 상승세를 잇기 위해 B2C 사업 확장에 나선다. 우선 B2C 사업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F푸드 관계자는 "각 브랜드의 정체성에 LF푸드만의 가치를 담은 신제품 출시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F는 올해 초 모노마트에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를 도입하며, 기존 주력인 B2B 사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최대 60% 할인"... 백화점, 설선물 사전예약

고물가에 사전예약 수요 대비
예년대비 품목·물량 대폭확대

백화점 업계가 2023년 설맞이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미래 설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12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모든 매장에서 '2023년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지난 설보다 품목 수를 10% 늘려, 모든 식품군에 총 200여 품목을 정상 대비 10%부터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축산과 청과 선물 세트 등 프리미엄부터 실속 세트까지 다양하다. 홍삼, 비타민 등 건강 식품군의 할인율은 평균 40%대로 더욱 높였다.

롯데온도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설 마중' 사진 행사를 연다. 다양한 백화

점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최대 7% 할인쿠폰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선·건강식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롯데온 단독 상품을 준비해, 최대 30% 할인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대상은 농산 47품목, 축산 32품목, 수산 29품목, 건강식품 52품목 등 총 240여 가지다. 품목 할인율은 한우 5~10%, 굴비 20%, 와인 60%, 건강식품 30%다. 신세계의 3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세트는 지난해 보다 30% 늘어난 100여 개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에서도 14일까지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다. 사전예약 시 초(超)프리미엄 그로서리 상품 '무항생제 녹색한우 VIP 납매9 1+ 특수부위 4.5kg'을 25%, 캐나다 자이언트 활 랍스터 세트 4kg/1미'를 32% 할인가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다. 12일 압구정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백화점과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움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현대백화점은 품목과 물량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렸다.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 등 인기 세트 약 240여 종을 최대 30% 할인에 선보인다. 한우 소포장 선물세트인 현대한우 소담 죽(竹)세트, 영광 참굴비 정(靑)세트 등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12일부터 1월 3일까지 전 지점에서 '2023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예약 판매 세트 품목은 전년 대비 20% 늘어, 총 280여 개다. 해당 기간 최대 60%에서 10%까지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중저가 예약판매 세트 품목을 전년 대비 30% 확대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삼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2년 연속 편입

삼삼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2년 연속 편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글로벌 상장기업 중 유통사가 총액 상위 기업 2500여 곳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함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위 10% 기업을 선정한다. 삼삼바

이오로직스는 평가기관 요구사항을 기반한 공식 전략 수립과 ESG 경영활동을 반영한 보고서 발간, 취약 부문 개선 등을 통해 ESG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 및 안전보건 정책 개정과 환경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정책 개정과 공급업체 리스크 완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구성 고도

화와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부분이 높게 평가 받았다.

존립 삼삼바이오로직스 사장은 "2년 연속 DJSI월드 지수에 편입된 것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풀무원 4개 계열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풀무원은 최근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푸드머스, 풀무원녹즙 등 4개 계열사가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CM은 2년에 한 번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풀무원건강생활과 올가홀푸드, 푸드머스는 지난 2010년 최초로 인증 받은 이래 올해까지 7회 연속 인증을 받으며 12년간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풀무원녹즙은 2019년 풀무원건강생활에서 별도 법인

으로 분리된 후 올해 2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활동 수행, 최고경영자의 소비자 중심경영 이해와 확고한 실천의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 받은 4개 계열사 외에도 풀무원식품은 2007년 종합식품기업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한 이래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2019년 국내 식품 기업 중 유일하게 소비자 경영인증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선배갑질’ 반기 든 수습변호사... “처우개선” 팔 걷은 변협



로펌대표 “집안 출신이...”
폭언에 강의자료 부당지시
‘취업길 막힐라’ 쉬쉬하다
젊은층부터 “더는 안돼” 각성
처우·권리 제도개선 TF 꾸려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선배 변호사’ 폭언 등에 젊은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직장 내 갑질’이 법조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방증인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특히 최근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정서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했던 A 씨가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겪은 일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무법인 대표 B 씨에게 폭언

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에게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견도 모른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A 씨 업무용 PC에서 다른 로펌 지원 서류와 이력서를 발견하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도 했다.

B 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협회도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 씨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일을 계기로 수습변호사 권

리 옹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변호사 법에는 수습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제21조 1항에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습변호사 업무 범위나 처우는 법무법인 재량에 맡겨졌다.

한 3년 차 변호사는 “수습변호사 시절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개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며 버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도 좀더 보니 취업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는 젊은 변호사들도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 같다”며 “폭언과 갑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협이 처우 개선이나 업무 범위에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합격전략 찾아라”... 뜨거운 입시 열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3 정시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본국서 민주화 운동 했다고 고문” 법원, 이집트 가족 난민 지위 인정

“현지 정부 탄압 지속... 체포 우려”

이집트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한 뒤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집트인의 난민 인정을 불허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외국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인 A 씨가 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1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 및 이집트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현 이집트 대통령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등의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5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이후 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및 1967년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

정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외국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청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이집트 내에서의 박해 경험 등에 관한 A 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 판사는 “A 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집트의 국가 정황에 비춰보면 A 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거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A 씨는 국적국인 이집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A 씨가 난민에 해당하는 이상 함께 입국한 부인과 자녀 역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석주 기자 ssp@

설 자리 없는 문과... 수능 상위권 ‘이과독식’

수학 1등급 89% ‘미적분·기하’
국어 1등급 72% ‘언어와 매체’
이과, 교차지원 의사 높아지며
통합수능 2년째 또 ‘문과침공’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년 차인 올해 국어·수학 영역 최상위권은 주로 이과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과생이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11일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87개 고등학교 수험생 2만6000명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93.45%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 통상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 때 미적분이나 기하 성적을 요구해 이 과목은 주로 이과생이 치른다. 지난해에도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 선택 수험생이 94.20%를 차지했다.

국어 영역 1등급에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수험생이 85.58%였다. 지난해 70.88%보다 15%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언어와 매체도 이과생 선호도가 높은 과목이다.

종로학원이 올해 수능에 응시한 고3 수험생과 졸업생 4968명 성적을 분석

영역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화작	언매	화작	언매
국어 1등급	35.1%	65.0%	27.9%	72.1%
수학 1등급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문과(화통)	이과(미적/기하)	문과(화통)	이과(미적/기하)
	14.7%	85.3%	11.1%	88.9%

한 결과에서도 수학 1등급 가운데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수험생이 88.9%에 달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85.3%보다 3.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국어 1등급에서는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지난해 65.0%에서 올해 72.1%로 7.1%포인트 올라갔다. 입시업계는 올해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화법과 작문’ (130점)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생 가운데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국어 최상위권도 이과생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어·수학 최상위권 모두 이과생이 차지하면서 이들이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이 지난해보다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8일 사이 수험생 49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수합 270점대 이상 상위권 학생 가운데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27.5%로 지난해 비율(19.0%)을 크게 웃돌았다.

교차 지원 의사를 드러낸 이과생 비율은 270점대 32.0%, 260점대 28.3%, 280점대 27.5% 순으로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도 수능 고득점 구간대에서 교차 지원 의사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과생이 수학에 유리한 구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높은 점수가 나오는 언어와 매체도 이들에게 더 쏠려 상황상 수학·국어 모두 이과생이 유리해지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성공 안착

5개월 만에 1406건... 86% “만족”

서울시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돕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가 시행된 지 약 5개월 만에 1406건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주거 안심 매니저와의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 보기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7월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9월에는 9개 자치구(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44명의 주거 안심 매니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등기부 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 상담이 805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세 형성이

및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 지원(19%),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4%), 집 보기 동행(10%) 순이었다.

특히 이용자의 98%가 사회초년생이나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6%가 전·월세를 구할 때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서비스를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 가구는 사전신청 및 예약을 통해 매 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이나 주말에 집 보기 동행을 요청할 경우 주거 안심 매니저와 일장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chaebi@

Class가다른 상위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궁녀의 시선으로 역사의 여백과 행간 읽었죠”

‘궁녀로운 조선시대’ 책 낸 조민기 작가

장희빈에 대한 오해, 능력으로 권력 정점 선 조두대·김개시 ‘필자 뇌피셜 아니냐’ 비판받지 않으려 더 열심히 사료 찾아

“왕도 사관도 남성이니까 기록에는 그들의 시선이 들어가 있어요. 궁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성의 없이 남겨진 편이라, 부스러기를 찾아가는 것과 같았죠.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증거를 찾아서 역사의 여백과 행간을 읽어냈습니다.”

신간 ‘궁녀로운 조선시대’를 집필한 조민기(사진) 작가는 지난 7일 본지와 만나 출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책은 문정왕후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던 창빈 안씨,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희빈 장씨, 세종과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조두대처럼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조선시대 궁녀 8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담았다.

‘궁녀로운 조선시대’ 속 궁녀는 왕의 승인을 받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다.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제각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개척해 나간 이들도다.

처세술의 달인 창빈 안씨는 중종의 사랑

을 두고 문정왕후와 경쟁하는 대신, 그를 상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쪽을 택해 평생 안정적인 입지를 보전받는다. 노비 출신으로 두뇌가 총명했던 조두대는 세종의 한글 창제 과정에 기여하고, 세조 시절 작성된 능엄경 발문에 이름 석 자를 새기는 등 권력의 정점에 서기도 한다.

조 작가는 “잘 알려진 궁녀와 처음 듣는 궁녀가 모두 존재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인생의 드라마가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있어야 하니 인물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집필 과정을 돌아봤다.

조 작가는 조선왕조실록, 선원록, 인현왕후전, 수문록 등 출처가 분명한 기록물을 토대로 궁녀를 선별해 그들의 역할을 증명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때로는 세간에 알려진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대표적인 게 장희빈으로 잘 알려진 희빈 장씨 사례다. 조 작가는 숙종의 진실한 사



랑을 독점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지지한 노론 세력에 의해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평가절하됐다고 주장한다. “대선 후보가 나올 때 지금의 여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노비 출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조두대, 김개시를 다루는 4장은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다.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조두대는 세조 시절 불경 능엄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능엄경언해’에서는 “신미와 사지, 학열, 학조

스님이 잘못된 번역을 고치면 최종적으로 세조가 보고 난 후 조두대가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 작가는 “조두대, 김개시는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권력의 끝까지 올라간 다”면서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이 언급한 ‘아침나절이 되기 전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28자를 통달하여 이해한 사람’은 조두대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궁녀에 관한 제한된 기록을 토대로 역사의 행간을 읽어내는 책의 특성상 혹여라도 “조민기 작가의 ‘뇌피셜’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까봐 더 열심히 사료를 찾았다”고 고백하며 웃었다.

또 무엇보다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서술된 역사의 한 대목을 다시 그려보는 여정 자체가 의미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썼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름 없는 궁녀처럼 희미한 존재일 수 있다. 우리가 궁녀를 ‘왕의 여자’로 단정하는 것처럼 후대가 우리를 한 단어로 단정해버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글·사진 박꽃 기자 pgot@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過而不改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 선정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11일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이불개는 논어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하는 사자성어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에 때문”이라며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 기간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 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강조했다.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장(慾蓋彌彰)’(14.7%)이 과이불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롭다’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飾非)’(13.3%),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다는 뜻으로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함’을 말하는 ‘군맹무상(群盲無象)’(7.4%)이 뒤를 이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 투자유치 지원

서울시,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콘텐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 출신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를 포함한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인 16개국, 18명의 외국인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각국 대사관과 공공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고 공적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서울시회의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주요 선정자로는 △미국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이티바(Cytiva)’의 대(對)한국 백신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벨기에인 프란시스 반 패리스 사이티바 아태지역 총괄사장 △매년 서울시와 서울투자청,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등과 함께 ‘뉴질랜드-한국 테크로드쇼’



9일 열린 ‘2022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외국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시

를 공동 개최 등 뉴질랜드와 서울의 테크 기업 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뉴질랜드인 토니 가렛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에 대한 투자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서울-유럽 간 기업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독일인 디어크 올리버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현대차, 전국 판매왕과 함께 저소득층 환아 돕기

카마스터 판매수당 적립·회사 매칭그랜트로 초록우산에 후원금

현대자동차가 역대 판매왕 등 전국 판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함께 저소득층 환아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조성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일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판매 우수 카마스터들과 뜻을 함께해 후원금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카마스터 15명의 판매수당 일부를 적립한 1000만 원에 현대차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임직원의 기부 금액에 맞춰 기업도 일정한 비율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후원금은 향후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등 저소득층 환아들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1월에도 카마



현대자동차는 9일 영등대로 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스터들과 함께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기 위해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달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상복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보국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대희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김문기 △인사총무부장 노종배 △인재개발원장 김응규 △회원지원부장 김재득 △농촌지원부장 최진수 △IT기획부장 김태성 △IT경제부장 김세권 △IT상호금융부장 이윤형 △IT디지털정보담당장 서재국 △정보보호부장 김종표 △농협경제연구소 부소장 박재민 △신용보증업무부장 김성용 △상호금융기획부장 김영훈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조창현 △상호금융수신지원부

장 김철희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여신투자지원부장 이희운 △상호금융디지털사업부장 신동순 △상호금융확장사업부장 장성원 △상호금융자금부장 이정환 △상호금융국내증권부장 김중혁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구정각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박정균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장 이승민 △디지털경제부장 서세영 △산지유통부장 이수철 △원예수급부장 김정호 △양곡사업부장 허용준 △인삼사업부장 임규원 △마트전략부장 옥영석 △온라인사업부장 김창희 △감사부장 허윤식 △축산기획부장 공형식 △축산지원부장 최강필 △축산물도매분시장 김중수 △농협 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이세용

◆농협금융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이기현 △경영지원부장 하성국 △홍

보부장 김강훈 △사업전략부장 조청래 △WM전략부장 정해웅 △글로벌전략부장 이봉주 △리스크관리부장 홍순욱 △에셋전략부장 박찬규 △감사부장 이성남 ◇농협은행 △중합기획부장 최동하 △DT전략부장 김동영 △프로세스혁신부장 권동현 △데이터사업부장 김주식 △NH멤버사업부장 김양수 △개인고객부장 심현섭 △개인디지털플랫폼부장 이흥규 △기업고객부장 진용식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 박광원 △IB사업부장 김수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상대 △외환사업부장 고은정 △대손보전기금부장 김형기 △공공금융부장 이훈 △경영지원부장 이재진 △인사부장 박현동 △여신기획부장 연성흠 △여신관리부장 민병도 △신용감리부장 양재영 △IT금융부장 신현준 △IT경영정보부장 장마리 △IT투자

금융담당장 박용석 △IT카드디지털담당장 이영규 △WMS사업부장 이만경 △신탁부장 이현호 △자금부장 이순재 △FX파생사업부장 조장군 △고객정보보호부장 임세민 △NH카드분사 김민자, 이종삼 △고객행복센터장 김성훈 △기술금융담당장 김동수 △녹색금융사업담당장 손영민 △농식품투자담당장 송정미 △자금운용지원담당장 김주원 △서울영업본부 강승규, 김성훈 ◇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수경 △경영기획부장 김재복 △경영지원부장 김기동 △IT지원부장 강완모 △상품개발부장 하형준 △디지털전략담당장 이재원 △투자전략부장 이원진 △투자운용부장 이성환 ◇농협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최성국 △일반보험부장 서윤중 △장기보험부장 임병삼 △전략채널사업부장 장재영

부음

▲장기진 씨 별세, 김종락·정숙·정현·우순·현자 씨 모친상, 김희태·명진 씨 조모상, 김지영(이투데이 기자)·김하영·이정우·길호균·성지혜·임주희 씨 외조모상 = 10일, 구리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031-552-5119

▲김복자 씨 별세, 이은석(광주은행 홍보예산집행팀장)·은창(하백초 교감) 씨 모친상 = 11일, 광주 서구 한국병원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62-374-4044

▲김영학 씨 별세, 김수섭(조세일보 회장·전 한경닷컴 사장)·준유(동의의료원 기전실장) 씨 부친상, 김재환(싱가포르 프레스토폴리스) 씨 조부상 = 11일, 부산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051-866-3757

▲이열희 씨 별세, 이정희(메트로신문 대기자·상무·전 부산일보 서울본부장) 씨 모친상 = 10일, 구로성심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067-1544

▲손영호(전 동수원세무사) 씨 별세, 박재근 씨 남편상, 손영숙·수경·성원(사업)·지원(사업) 씨 부친상, 김신(사업)·권종오(SBS 보도본부 부국장 선임기자) 씨 장인상, 고현주 씨 시부상 =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02-3410-691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동 비중 감소라는 장기적 변화와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는 좋지 않은 관계라는 단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탈탄소 트렌드 속에서 석유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빠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석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12월 7~10일)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자의 의도를 담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금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생각할 때 세계 지정학·지경학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다.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두 달 뒤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카르텔 'OPEC 플러스'는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함으로써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냉각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반세기 넘게 국제 석유 정세를 안정시켜 온 미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우호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서 중동은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요충지이며, 주요한 석유 공급원이다. 미국으로서는 셰일 혁명으로 중동산 원유 공급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중동 국가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면

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쐬기를 박아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원유 무역 규모를 키우고 유전 탐사 개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사우디는 에너지와 통신기술을 포함한 전략적 포괄협정을 체결했다. 화웨이는 2022년 2월 수도 리야드에 해외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업했다. 사우디는 중국 당국이 개발에 주력하는 군사용 드론의 주요 수입국이다. 시 주석과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가 추진하는 미래 스마트 도시인 '네움시티'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 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중국 기술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구상이다. 사우디와의 관계 강화는 중국이 추진하는 중동 정책의 발판이 된다. 중국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통화 체제에도 도전하는 양상이다. 시 주석은 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걸프협력회의(GCC)의 아랍국가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 표시 결제가 국제적인 규칙이다.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미국으로 자금이 환류하는 구조를 뒷받침해 왔다. 미국은 2000년대부터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중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2008년까지 연간 5억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2021년 1억300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중국은 현재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수출·수입 거래액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경제개혁을 서두르는 사우디는 중국의 기술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발언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동 비중 감소라는 장기적 변화와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는 좋지 않은 관계라는 단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탈탄소 트렌드 속에서 석유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빠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석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빠른 속도로 점점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우디와 이란의 적대적인 관계를 감안하면 사우디의 친미 노선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 미디어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사우디가 제3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만일 미국이 중동에 컴백한다면 중동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적극적인 중동 자원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중동 붐의 기선을 잡는 데 신경전을 펼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많은 돈과 시장·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과의 승부는 매우 어렵다.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중동에 뛰어들고 있다. 중동을 둘러싸고 한 치도 한눈팔 수 없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논현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

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중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리가 일어나고 속기특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법안 검토가 불가능했다. 설사 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도 법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지는 사실 회의적이다. 짧은 기간에 교섭단체가

극단의 주장으로 일관하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막바지에 극적 타결이라는 꼴이 나오지 않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 제도개선과 입법능력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당면과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개정안별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개인이 부담하는 총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분석이 그 예다. 이렇게 하면 위 쟁점법률안 판단에 중요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재산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세 베이스 포착 측면에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유세 하나만을 놓고 따지니 납세자의 유동성, 집값 하락 등 온갖 변수에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 주식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납세자의 과세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기법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

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침 이 문제를 고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바람직한 입법 시도다.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Taxeringskalendern'이라는 책자를 통해 누구나 다른 납세자들의 소득, 재산 및 내는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이웃, 직장 동료의 소득과 세무 자료를 낱알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원자료 제공은 필요하다. 다만, 통계 자료를 획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세제 부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대치와 졸속 심사를 줄일 수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탈틀라 뱅크헤드 명인 "다시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되 좀 더 일찍 저지를 것이다." 미국의 무대·영화배우이다. 할아버지와 삼촌은 상원의원, 아버지는 11번의 임기 동안 미 하원의장을 지낸 정치 가문 출신이다. 하루에 120개비의 담배를 피운 그녀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고생했다. 그녀는 몇 편 출연하지 않은 영화 '구명보트'에서 열연했다. 그녀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02~1968. ☆ 고사성어 / 약육강식(弱肉強食) 강한 동물이 살아남고 약한 동물은 희생되는 자연의 생존법칙을 가리킨다. 당(唐)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글 '승려 문창을 전송하며 써주다(送浮屠文暢師序)'에서 유래한 말이다. "새가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쪼아 먹다가 머리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보고, 짐승이 숨어 지내며 가끔 나오는 것은 다른 짐승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약한 것은 먹고 강한 것은 먹습니다[猶且不脫焉弱之肉強之食]. 지금 나와 문창 그대가 편안히 살면서 한가로이 먹으면서 삶과 죽음에 조금해하지 않는 것이 금수와 다르니, 어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 시사상식/아나코노미(Anaconomy) 무정부주의를 뜻하는 아나키즘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다. 국가와 기업, 개인 등 경제 세 주체 중에서 국가와 기업과 비교해 그동안 존재감이 약했던 개인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소셜네트워크 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개인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지식보다 일반 대중의 집단 지성이 중요해지면서 가능해졌다. ☆ 우리말 유래 / 멍텅구리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멍텅'은 '흐리멍텅하다'에서 왔다. 접미사 '-구리'는 놀림을 받을 만한 대상을 지시할 때 쓰이는 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동욱 / 부동산부

축배만 들 수 없는 '네움시티' 특수

"업무협약(MOU) 수준의 퍼포먼스가 실제 사업 수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년 전 방한에서도 10조 원 규모의 MOU를 맺었는데 사업으로 연계된 건 정작 얼마 없어요. 유가 하락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어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총리)의 방한으로 우리나

라 재계가 들썩거렸다. 에너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진 이번 MOU는 규모만 40조 원(300억 달러)에 달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제2의 중동 특수'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실제 사업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개발·사업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건설업계에선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인 '네움(Neom) 시티'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네움시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67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할 만한 분위기다. 그러나 빈 살만 왕세자가 2019년 6월 방한했을 당시 체결했던 10조 원 규모 MOU의 절반 정도가 실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

서 축배를 들기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나온다. 국제유가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사우디는 국가 재정의 90%를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글로벌 에너지 동향에 민감하다. 산유국의 경우 균형재정 유가 대비 시장 유가가 높으면 발주확대로 이어지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의 입김이 강한 곳으로, 그동안 알짜 사업은 유럽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한국 기업은 사업 규모만 크고 수익성 낮은 사업만 수주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 살만의 방한을 반기는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이유다. toto@

여러분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국내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시가총액 2조 원(시총 순위 20위권)을 넘나드는 코스닥 우량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에서 2018년 입사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가 회사 자기자본의 90%가 넘는 2000억 원대의 횡령을 하고, 이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 공사까지 뒀는데도 회사나 감사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서울계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열거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올해 자본시장은 회계 참사로 얼룩졌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회계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는 7년간 2248억 엔(2조20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카메라 업체 올림푸는 11년에 걸쳐 17억 달러(2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에너지 기업 엔론과 통신회사 월드컴이 각각

15억 달러(1조8000억 원)와 38억 달러(4조5000억 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선진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회계부정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는다. 2015년 39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건설에 내린 처벌은 과징금 20억 원이 전부였다.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회계원칙’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뿐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꺼낸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형 비상장사는 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 주기적 지정제 적용,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등 높은 회계 관련 규제를 받는데 이 범위를 축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비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현행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으로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심심찮게 터지는 회계부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내부 문제로 끝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

달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고, 시장 자본주의 기능을 멈출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가가 추락하거나 상장폐지된다면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개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나라 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어긋한 중국이나 홍콩 등으로 돌릴 수도 있다. 기업에 관한 정보의 70~80%는 회계정보로 나타난다. 기업의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한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고 경영성적을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투자자가 자본시장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해 재무상태의 건정성이나 경영성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뿐만이 아니다. 그 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하려면 일반인들도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를 모르면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없다. kmh@

특어, 특!

‘소부장’ 특허분쟁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특허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가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인 피에스케이(PSK)에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 예다. 피에스케이는 침해 주장된 3건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건은 무효, 1건은 유효로 판단 받고, 나머지 1건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원천특허에 기반한 특허소송이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피소기업의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는 특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품을 보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소송이 시작되면 기본적인 대응 조치로 계쟁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무효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에 특허소송은 그와 별개로 계속 다투게 된다. 특허소송에서는 비침해 논리의 개발과 회피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등록된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침해 포인트가 발견되면 소송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비침해 포인트가 있더라도 매우 강력한 것이 아니라면 회피 설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침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제품의 납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회피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도 특허를 출원하고, 침해 주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체크하여 향후 제품의 설계 변경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가장 답답한 상황은 비침해 포인트가 없고 회피 설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유일한 타개책은 자사의 특허권에 기초한 역소송의 제기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역소송이 가능한 특허가 있다면 상황은 역전되게 된다. 매출이 큰 기업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삼성이나 애플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마감 후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8일 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한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적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여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상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란 예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런 국회의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 올해 약 30조 원의 적자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를 사올 수 없고 그러면 국민에게 전기를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

야는 다음 날인 9일 진화에 나서며 올해 다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한전채 발행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돈을 빌려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미봉책이다.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붙어오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싼 편’이란 말이다. 최근 한전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KEPCO in Brief’엔 지난해 4분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국가별 전기요금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MW당 105달러다. 일본과 영국은 각각 258달러, 279달러로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미국은 140달러였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95달러로 일본 162달러, 영국 202달러에 비해 매우 싼 편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보다 저렴한 74달러였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은 비싸게 연료를 사와 연료비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팔았다.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다. 당연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한전 관계자의 “전기를 적게 써 달라”는 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한전이 연료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적자가 나든 말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냥 싸게 쓰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한전은 2조79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668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한전의 적자는 3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후의 방법으로 한전에 정부 재정투입 가

능성도 거론한다. 세금 투입은 소수의 전기다소비 이용자를 위해 다수의 전기소소비 이용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료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 즉, 지금처럼 연료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한 A와 B가 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A는 20원 이익을 봤고 이는 한전에 20원 적자로 이어졌다. 전기를 많이 쓰는 B는 80원 이익을 봤고 이 역시 한전에 80원 적자로 이어졌다. 100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면 세금을 같이 낸 A와 B 중 누가 손해이고 누가 이익일까. A가 쓰지도 않은 B의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쓴 사람이 쓴 만큼 내는 것은 시장경제의 이치다. 시장경제를 논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 만한 당연한 내용이다.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은 내기 싫다. ‘적게 쓰면 나만 손해잖아, 차라리 평평 쓰자’란 생각을 할까 두렵기도 하다. riby@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상을 바꾸는 K-BAB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이~만큼 말고 요~만큼만! 요리해요

너무 많이 요리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많아지면
지구가 점점 아파진대요
엄마, 우리 이제 먹을 만큼만 요리해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지구의 건강도 지키고 1년에 약 2조 6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실천으로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식사량에 알맞게 요리하기 프로젝트



1. 가족 수에 맞춰 계획하기
2. 소량으로 장보기
3. 계량컵 등을 사용하여 정량 지키기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15.7% 줄일 시,
연간 가계 절감 비용 2조 5백억 원을 20%로 환산
출처 : 환경부(2012)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